

戊子

DO DO DO DO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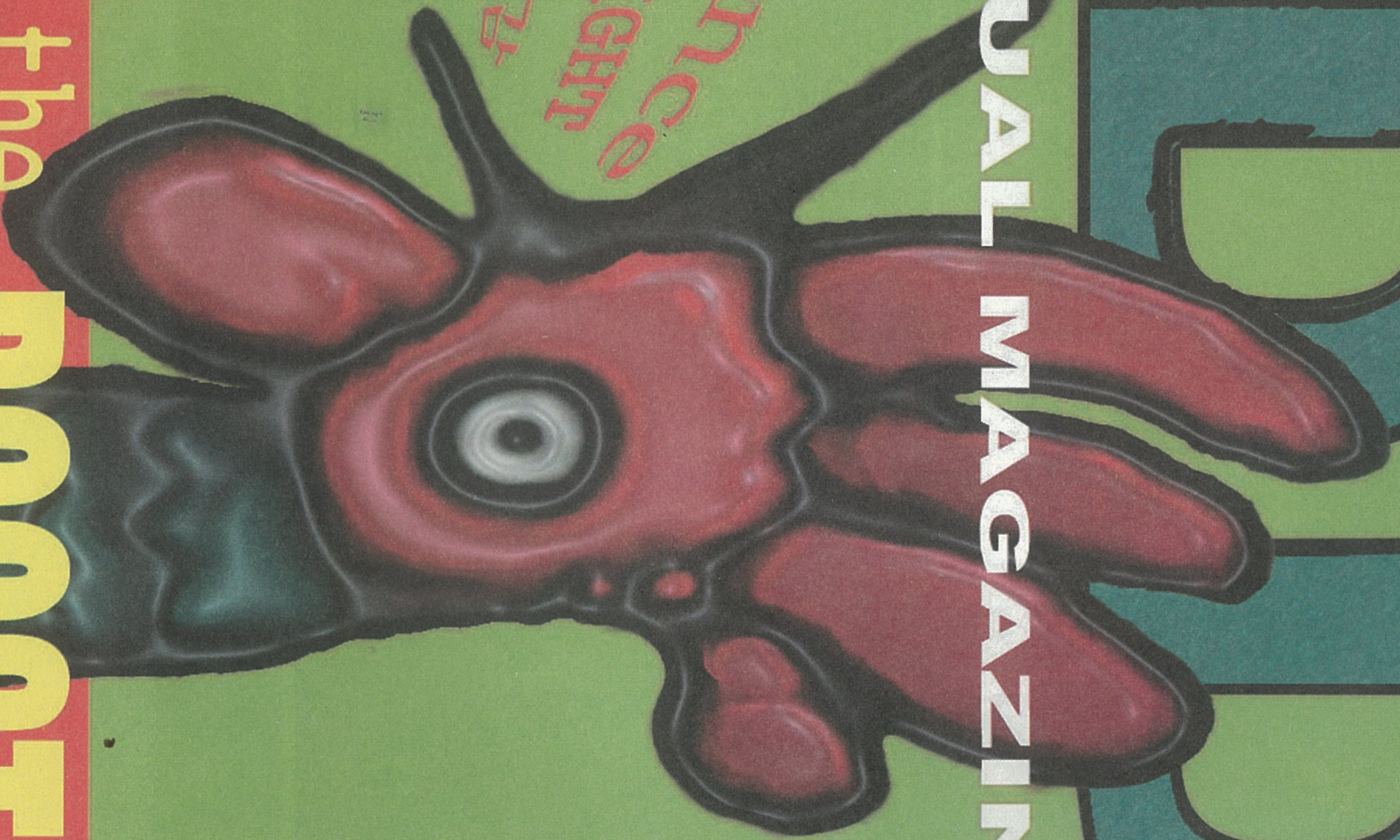
A BILINGUAL MAGAZINE

eloquence
FORESIGHT
Inspiration

2005

of the

YEAR ROOSTER
을 이



FREE





홍대와 무경계 음악축제

매달 둘째주 금요일. 8시부터 5시까지. 7개 각가다를 장르의 클럽에서 열립니다.



무경계음악축제 사운드데이, 최고의 뮤지션들과 최고의 관객, 최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무지천을 모집합니다

사운드데이 오디션실시

일 시 매달 세번째주 화요일 (사운드데이 다음주 화요일) BASSROOM 8pm

모집장르 재즈, 락, 힙합, 리운지, 일렉트로닉, 퓨전, 보컬, 음악과 관련된 모든 장르 및 공연

신청방법 www.soundday.co.kr

을 통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을 통해 접수

연 락 처 adrb@lycos.co.kr
011.9706.5441 (02.333.3910)

선정혜택

사운드데이 스페셜 프로그램 참가권으로 발탁
최고의 공연들과 함께 사운드데이에서 공연
사운드데이 홍보를 통한 팀프로모션
사운드데이 클럽에서의 지속적인 공연
Sounday Competition을런제자에게 참여

주의사항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조건은 음반과 관련된 공연이아, 하다는 조건외에는 없습니다.
미미크 기타앰프가 베이스앰프가 드럼1 이외의 악기는 참가권이 적용
준비하여야 합니다.
오디션 진행순서는 하루전에 e-mail로 공지해 드립니다.
당일 리허설은 없으며, 악기테킹시간은 팀당 15분으로 제한합니다.
오디션 연습은 한곡가조 10분 내외로 총 5곡 내외이어야 합니다.
단 심사위원들이 허용하는 사항에 의하여 초과할 수 있습니다.

준 비 참가비는 전혀 없음 기타앰프1 베이스앰프1 드럼1 외의 악기는 참가권이 준비

THE CLUB CULTURE ASSOCIATION

DDD magazine wants
Koreans and foreigners
who like to
draw,
write,
translate,
animate,
and
other creative things.
How do you want to be involved?
Contact dddlifeinkorea@yahoo.com



DDD magazine은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번역,
편집,
기사 작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DDD 활동에 참여 하시려면
있습니다.

dddlifeinkorea@yahoo.com으로 연락 주세요.

DDD is

Scott Liam Soper
Creator and Editor
John M. Rodgers
Associate Editor
Dae Hyun Chi
Jr. Associate Editor
Peter Kim
Korean Writing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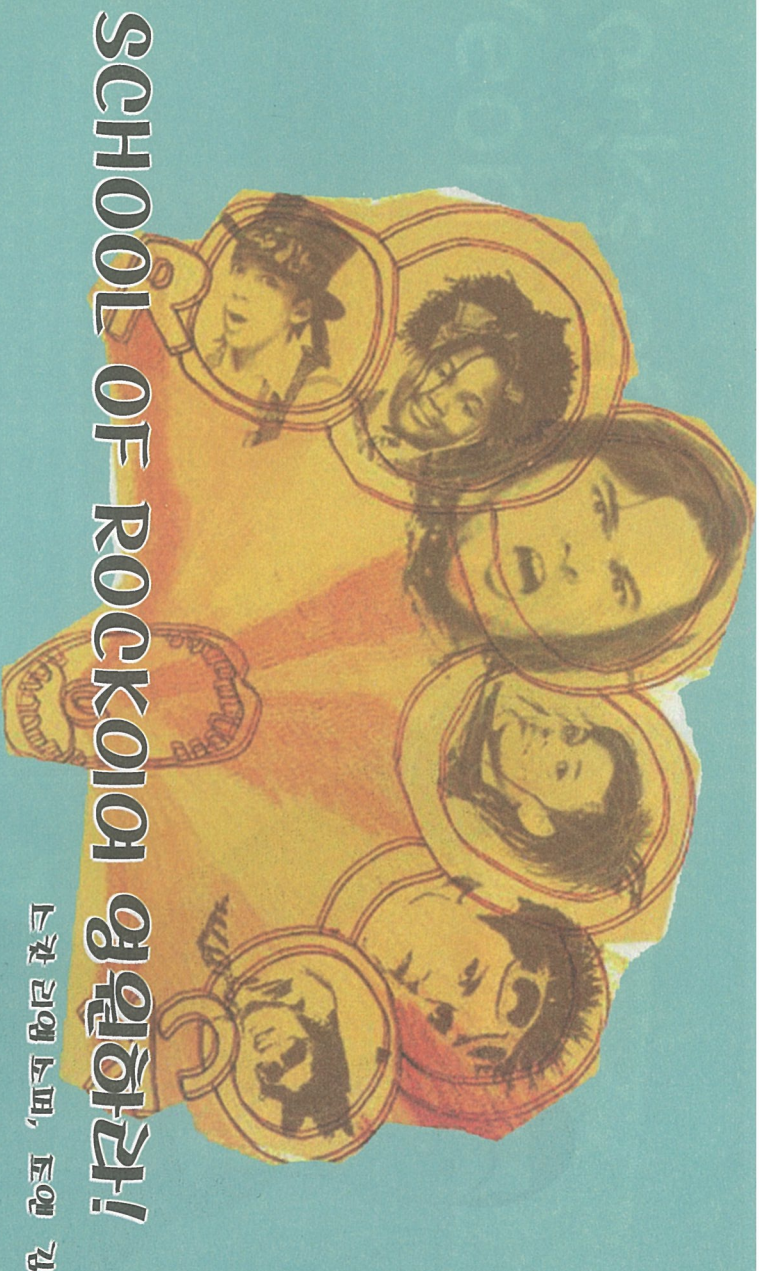
Seung Moon Choe
Art Director, Designer
E. White
Designer

Contributors

Aaron Clode
Andrew Baxter
Alix Tix
Black
Caroline Kim
Drew Keast
Fiona Jackson
Gem
Gyubang
Insu Park
J.
Jack Quinn
James Lee
Jay Lee
Je Woon Lee
Jean Bratisois
Jina Kim
Joanne Park
Jung II Soo
Jun Woo
Jung Woo
Karen Hannah
Kari Shenk
Miki Choi
Miki Kim
Nick Bausman
Nigel Salvio
Nine
Sarah Choi
Shin
So So Girl
Sohee Park
Sung Min
Tahl Gitter
Vincent Sung
Young Bok Kim

Associates
Amnesty International
B H Productions
Club Day
Green Party Korea
Gwangju Biennale
Nanoom Communication
Neity Design Company
Nexus BBooks
Seoul Times
Smazie Space
Toastmasters (Gangnam)
What the Book
Work 'n' Play

Copywrite © DDD 2005. All rights reserved.



SCHOOL OF ROCK이여 영원하라!

노란 리본 노파, 노란 깃

“마랄 남씨는 차가워요.
하지만 오늘 이 달빛이 너무 좋은걸요...
락 앤 룰의 매력에 흠뻑 빠진 난 오늘 밤 내내 이 분위기를 이어갈
거예요.”

원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날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많은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영화는 단연 ‘School of Rock’ 일 것이다. 이 영화는 현실의 질서 따위는 약간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전에 락 밴드에서 활동하다 우연찮게 한 초등학교의 임시 교사가 된 인물이 뭔가 신나는 일을 벌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이 특이한 경력을 가진 선생님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고루한 클래식음악을 연주하게 하는 대신에 기타 음향의 강렬함을 발산시키는 엉뚱이를 흔들며 흥겹게 트위스트를 출 수도 있게 만드는 그리고 자유분방한 머리로양을 하고서 연주를 하는 서구 세계의 ‘락의 전설’들이 가진 음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선생님은 소위 ‘락 밴드’라는 아심찬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는 이 밴드의 리더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나 학교 당국과 마찰음을 내지 않기 위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과 선생님만이 아는 비밀에 부친다. 중상위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이 반 학생들의 인종 구성은 가지각색이다. 안경을 쓴 동양계의 키보드를 연주하는 로렌스는 선생님에게 이것이 과학 수업의 연장인지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그건 아이들의 기우였던 것.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 쉰다. 로렌스는 나중에 선생님에게 밴드의 멤버로 활동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 놓는다. 그 이유인 즉, 자기가 아이들 사이에 인기가 없어 왕따나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글썽, 이 락 앤 룰이 그 생각을 뒤 흔들어 놓지 않을까?

‘School of Rock’ 은 인종과 외모와 성별을 뛰어넘어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로맨티 영화’로 분류된다. 그 일례로, 통통한 체격을 가진 흑인 여학생인 타미카가 그녀는 그룹에 열광하는 오피부대의 한 일원으로, 아니면 밴드의 안전을 도맡는 보디가드가 되긴 싫다고 한다. 그녀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이다. 물론 타미카가 다름에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정하고,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녀의 재능에 맡기자.

사실 이 영화의 매력적인 부분은 후반부쯤에 있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수업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 보여 주지 못했다. 그 부분에서는 다른 학생보다 통통한 몸매를 가진 자신의 외모 때문에 조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타미카가 무대에 서는 생각을 접어 버리는 장면이 있다. 요즘 세상이 외모 지상주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타미카는 다른 멤버들과 무대에 서게 되는데 아무도 그녀의 통통한 외모를 두고서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없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열광하는 것을 가졌다. 그건 바로 그녀의 음악적 재능! 외모는 차제하고 서라도 자신이 재능이 없을 때 진정 재능이 없다고 선뜻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못이나 있을까? 내가 알기로는 뉴욕이나 서울에선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듯하다.

이 영화는 에휴은이와 지금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자살의 충동을 묘사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그 이유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는 정말 신나는 것이 무언지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피부대에 속하든, 페니저이든, 팬이든, 기타 연주자 또는 나중에 자신들의 자녀들의 공연을 보고 매료되는 부모님들이든 말이다.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이 영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사회의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대안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 영화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모두 늘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 이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듣는 것을 속제로 내준 장면은 정말 인상

적이었다. 학생들은 그 속제를 환영하거나 최소한 선생님에게 감사해야만 했으리라.

아이들이 ‘밴드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을 때 무대에 서고 음악을 연주할 때는 그들이 마법에라도 홀린 듯 보였다. 마법이 요즘 상업 대중 문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영화도 그렇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데, 생음악이 전해주는 가공되지 않은 진실한 마법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흥대에서 음악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는 펑크 밴드가 그들을 죽은 헤리포터 또는 헤리포터와 견제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들 뭐 그리 놀라겠는가.

School of Rock 에 등장한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락을 연주하자 청중들은 실재 그런 신선한 감동을 지어내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음악 속에 담겨 퍼지는 세대간의 갈등은 여전히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 아이들이 무대에서 락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부모님들이 이제는 학구적인 교육만을 받아 왔던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는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음악과 연주에 열렬한 팬으로 변모한다. 이런 변화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한다는 뜻이, 락 분위기와 시뭏 다른 훨씬 더 교묘한 형태의 감동이 교실에서 영화를 감상하던 우리 고등학생들의 가슴에도 스며든다. 키보드를 연주하는 로렌스의 어시어 출신 부모와 기타를 치는 자크를 둔 미국인 부모는 서로 눈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새로 접하는 음악의 기교를 칭찬한다. 음악을 예술과 대중적인 것, 그리고 지속적인 싸구려로 구분하던 종전의 기준이 와해되는 순간이지만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학생들의 잠재력은 그대로 숨쉬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고대 올림푸스 산을 한히 비추는 오늘 밤의 달빛과 같은 새로운 것이 보석처럼 빛난다.

School of Rock 이 할리우드에서 제작하는 마법 종류의 이야기라고 한들 어떤가? 우리가 밝은 쪽을 쳐다보게 된다면 말이다. 어떤 경우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외면할 수도 있고 당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은 병에 걸리거나 이 세상에 적당히 실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여기서 락 앤 룰이 전달하고자 하는 관점은 좋은 시절은 계속 유지되게 놔두라는 것이다. 아마 그것이 휴대용 전화기의 게임이나 성형수술과 같은 허상 일지라도 말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예가 있다. 아마도 조용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야 할까? 이 소녀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기타를 치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가 보 다 하며 살아간다. 감심년이 지나고 올유년이 되도록...

나도 이런 류의 소녀를 알고 있다. 내 학생 중 한 명은 그녀의 어머니가 영국 방송 채널인 BBC에 텔레비전 채널을 맞추어 놓고 그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 리모트 콘트롤도 치워 버렸다고 했다. 아마도 그의 영어 성적에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이다. 방송을 쳐주고는 어머니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 가셔서 여러 가지 쿨한 음악들이 나오는 93.1 FM 라디오 채널에 귀를 고정시킨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아니면 최소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살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좋은 음악은 좋은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 여학생은 가방에서 흰 티셔츠로 싸 놓았던 ‘School of Rock’ 영화를 꺼낸다. 그 서츠는 거리에서 춤을 추는 그림이 프린트되어 있는 것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꾸로 서서 혼신을 다해 춤을 추는 우스꽝스러운 캐릭터가 있는 그림이다.

BBC 방송을 끄고, 영화를 본다. 그러자 그 여학생의 심박수가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평범한 나날들이 신나는 토요일 밤으로 접어들면서 모든 새로운 가능성은 분출되고 인생은 또 변함없이 흘러간다. 단지 담과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말이다.

SCHOOL OF ROCK forever!

By Scott Liam Soper with Joanne

"I'm in love with modern moonlight...
Even when it's cold outside..."

Yeah...I'm in love with rock & roll and I'll be out all night".

The Modern Lovers

There is so much chit-chat about all the important films coming out of Korea these days. Without a doubt the most

and when Laurence a bespectacled east Asian keyboardist asks if the special class project is going to be a "science project" It's hard not to exhale a breath and thank God that it isn't. Later, Laurence comes up to the teacher and says he doesn't want to be in the band because he is not cool and nobody ever talks to him... well, rock 'n' roll can certainly change that and it will.

important movie to come into Korea and I suspect many other non-native English speaking countries is the rock 'n' roll film "School of Rock". It's

"School of Rock" is a romantic film in the sense that it takes on the world by crisscrossing its boundaries of race, looks and gender with a gym-bal bang on the soul. Like when chubby black Tamiya says she doesn't want to be a groupie of the band or part of the security team for the band. Instead she really wants to sing. Of course she can she only needs to take a chance, stand up for herself and her talent does the rest.

ious musician turned substitute teacher who goes into a class of elementary schoolers and starts rocking out. He steers the kids away from their routine of playing

In fact a real smooth part of the film that I didn't have a chance to show students in my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class is later on in the story when Tannika decides that she doesn't want to get up on stage because she is fat and worried that people will laugh at her. Well like most everything else these days rock 'n' roll is about looks and so it goes yet Tannika gets on stage with her band and the crowd doesn't laugh. She really has the one thing that everybody wants today and that is "TALENT". Regardless of how fat or skinny is there anyone who can admit to the fact they don't have TALENT if they don't? Not anybody I have ever met in New York nor anyone I know in Seoul can.

music and
thrusters
them into
the world
of power
chords,
pelvic
gyra-
tions,
funky
hair-
cuts
and
the

The film never portrays hyper-mature kids and the modern impulse of suicide because it doesn't have to. It shows about being in rock 'n' roll and that it's okay to come as you are ... whether as a groupie, manager, fan, guitar player or admiring parent. Watching it is really one big exciting fucking anecdote to morbid suicide! And there is no sense talking about everything that happens in the film. One scene is enough when the teacher actually gives out the homework assignment of listening to different music CDs that the students might like or at least should appreciate.

When the kids make it to their "Battle of the bands" they are blown away in the magic of being onstage and creating live music. Magic is a popular theme in entertainment-culture these days and this film celebrates that because if you give it a chance rock 'n' roll is as raw and real as magic gets. Actually it wouldn't surprise me if some

punk band in Hongdae

calling themselves the

BLACKSATAGUN

musical ways of the mythical Western 'Rock God'.

He devises a special class project called "Rock Band". He is the leader and of course it has to be kept a secret from the kid's parents and the school administration. The students who form the band are an ethnic mix of upper-middle class kids

ing right now.

When the kids from "School of Rock" hit the stage, begin playing and the audience understands that they are actually.... well kids, electricity shoots through the generation gap. The furious

parents are stunned by the sights and sounds of their classically trained kids turned into rock 'n' rollers. Actually the parents start turning into real fans of their kids and their music. And as if watching all this isn't enough, a much softer pulse of energy is absorbed by the high schoolers watching this in my classroom. When the Asian parent of Laurence the keyboardist and the American parent of Zach the guitarist turn to each other and compliment each other on their kids' new found music "skills". It's like the chains pulling high culture and low culture in different directions snap off, and then the link between parent's expectations and student's possibilities doesn't at all break off, but, instead radiates anew like a modern moonlight fire on ancient Mount Olympus.

All right, all right, arrrrright... so maybe the magic of 'School of Rock' is just another product from Hollywood. And maybe you say whatever to rock 'n' roll. Maybe

someone you love doesn't love you back and the one who loves you back is very sick or just disappointed in this life. And rock 'n' roll mostly says let the good times roll, so maybe it is just another one of life's illusions like cell phone games and plastic surgery.

But then again there is some individual you know, maybe some quiet girl who lives unaffected strumming the six strings of life Sunday through Friday... while just waiting. Perhaps waiting for the year of the Monkey to become the year of the Rooster. I know someone like this. A student of mine told me how her mother put the BBC channel on TV and then hid the remote con from her. Obviously the mother wasn't impressed with her daughter's English grade. So the angry mother goes off to the bedroom and turns on the radio to that groovy station 93.1 FM. I suppose everyone is under some sort of pressure to make something happen in life or at least make some sense of life. And if this is true then maybe good music helps us. Anyway, something does happen. The quiet girl still can't find the remote con so she goes into her school bag and pulls out "School of Rock". It is wrapped in her white sweat shirt; the one with the picture of a dance monkey on the greasy street throwing his feet in the air.

So the BBC goes off, the movie goes in, and a quiet girl's heart rate does go up. And as the regular might explode into Saturday's midnight, all the new possibilities erupt, and for sure life continues... it just continues in a different way.



Scott Liam Soper is the creator and editor of "DDD". Joanne Kim studies translation.
Contact dddliifeinkorea@yahoo.com

The Art Works of Jeon Jie Yeon

by Jack Quin



"I hope people can feel and think through my works because I am a painter."

Jeon Jie 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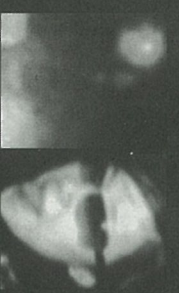
We are all artists. The themes we explore, the mediums we choose and the challenges we endure are our own. Most always we entitle our work Life. And since life is a journey so then is art. In her eighth solo art exhibition at the Pyunghwa Gallery in Myeong Dong, Jeon Jie Yeon shared part of a journey she began in 1996. That was the year that she discovered and began exploring what happens when a pencil and other medias meets, meets... What is that? Is it metal? Is it wood? Cloth? Leather? Plaster? Paper? Yes. It is mostly paper. Beautiful paper. Like this once was.

box, your white walled pad (4).

Art is not where we are going, it is when and where we are. Jeon Jie Yeon's art works happen when and where they should - in us - and then they take us out of us. They are neither clever nor simple, muted nor loud, static nor dynamic, known nor unknown, hidden nor revealed, beautiful nor terrible. Somehow they have become art and so they are remarkable. As I left the gallery I took a second look and mused that since these works are mostly paper, and already in a fragile state, they will change quickly and I wondered where Jeon Jie Yeon will take us next. You can find out for yourself at the Korean Art Festival, Sejong Centre, February 4-27, 2005,

and again starting April 15, 2005, at the Seoul Arts Centre.

Jeon Jie Yeon has works exhibited in galleries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including Sejong Centre, Seoul, Korea. Her honors include the 1999 Malta Biennale Award for Painting.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Seoul.



지가 없을 때의 효과를 보여준다.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정취할 수 있다"(3)는 숙면을 잘 설명하고 있는 '외피'라는 작품은 필자의 마음에 드는 작품 중 하나였다. 이 작품은 필자가 왜 현대 예술 작품들이 대부분 액자로 걸릴 필요가 없는지를 느끼게 하는 좋은 예이다. 피자는 어느 온도에서 먹어도 괜찮지만, 삶은 불라움으로 가득 차야만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액자에 걸려 있었지만 그레도 나를 허기지게 만들었으며, 명동 성당의 수녀의 얼굴을 붉히도록 했다. 조분을 연상케 하는 초록, 노랑, 갈색 톤의 여섯 개의 페널로 된 십자가 형태의 '출구'라는 작품은 다른 많은 작품들로부터 두드러져 본 전시에서 훌륭한 마조 효과를 가져왔다.



The discovery and reproduction of paper is one of our greatest achievements; using it has become one of our most consumptive obsessions. In unskilled hands it quickly disappears into the ether. In skilled hands it becomes both the imaginable and unimaginable. In the hands of Jeon Jie Yeon it becomes a chameleon masquerading as an elemental shape shifter (1). The works displayed at Pyunghwa Gallery represented less than 10% of those she has done while exploring this concept. The work entitled Package, which could be Radiohead's next album cover, appeared to me as an elephant leather book wrap with bloody red slashes and mute graphite constellations tinkling in the drear (2). Chaos, hearts and crosses spilt in the wrinkle of the wind, helped me experience what happens when there is no central image, no convergence. Outer Skin, which illumines well the expression "The way to the heart is through the stomach." (3), was one of my favorite works. It is also an example of why I feel that very few contemporary art works ought to be framed, pizza is good at any temperature and life should be full of surprises. It was framed. It made me hungry. It made a Myeong Dong Cathedral nun blush. Exit, a 6 paneled cross with early spring green, yellow and brown tones, put many of the other works in perspective and provided good contrast for the exhibition.

The reason why we create art is because we have choice. Interestingly and ironically, it seems the greater the vision, scope, ability and, in some cases, endurance of the artist, the less choice they seem to have about what they create. Jeon Jie Yeon is such an artist. She has been a DJ, an illustrator, a painter, a designer, author, teacher and musician to name but a few occupations. She is diligent, dedicated and experienced and her works show it. They are grooved, symmetrical, exhaustive, random, gouged, shredded, balanced, textured, strong, curved, framed, pinned down, carved, flat, layered, arranged, torn, restricted, weak, expansive, manipulated, pushed, pulled, wetted, plied, rolled, stretched and dried. While viewing her works I sensed again that for many of us, the urge towards freedom is natural. I also sensed that her works would make any space look better - dentist office, martini bar, opera house, airport, theatre stage, university, police

전지연의 예술 세계 잭 쿼인/ 김경선 옮김

"저는 사람들이 제 작품들을 통해 느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가니까요."

— 전지연

우리는 모두 예술가이다. 우리가 탐험하는 주제, 선택하는 매개체, 견뎌내는 도전들은 모두 우리들만의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작품을 우리는 '삶'이라 부른다. 삶이란 하나의 여행이고, 예술 또한 그렇다. 명동 평화 갤러리에서 열리는 여덟 번째 개인전에서 전지연은 1996년 시작한 자신의 여행의 한 부분을 우리들과 나누었다. 1996년은 그녀가 종이와 펜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하고 탐험하기 시작한 해이다.

종이의 발견과 재쟁은 인간이 성취해낸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다. 그리고 종이의 사용은 우리의 가장 소비적인 강박관념 중 하나가 되었다. 미숙한 손으로 다뤘을 때 종이는 빠르게 색이 바래 사라진다. 그러나 숙련된 손으로 다뤄질 때 종이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 된다. 전지연의 손으로 다룰 때 종이는 자연적인 형태를 다른 것으로 가정하는 카멜레온이 된다. (1)

라디오헤드의 다음 앨범 커버로 어울릴 법한 '포장'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핏빛 사선과 고요한 적목 별자리가 그려진 코끼리 가죽 책 포장지이다. '혼동'에서는 바람에 심장과 십자가가 부서진다. 이 작품은 집중되는 중심적인 이미

우리가 예술을 창조하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흥미롭고도 아이러니한 것은 비전, 시야, 능력,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가의 인내심이 클수록 그들이 창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더 적은 것 같다는 점이다. 전지연은 바로 그러한 예술가이다. 그녀의 작품을 보면서 필자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에게 있어서 자유를 향한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들은 또한 어디에 설치되든 공간을 더 멋지게 장식할 것이다. -치과 진료소, 마티니 바, 오페라 하우스, 공항, 극장, 대학교, 파출소, 그리고 당신의 침실의 멋진한 흰 벽까지도. (3)

예술은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이 아니다. 예술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며 장소이다. 전지연의 예술 작품은 명석하기도, 간단하기도 않다. 목소리를 죽이기도, 높이기도 않으며, 장적이기도, 역동적이기도, 알려지지 도 안 알려지지도 않다. 숨어있기도, 드러나지도 않으며, 아름답기도, 끔찍하기도 않다. 아찔한 그녀의 작품들이 예술이 되었고, 그리하여 비범하다. 갤러리를 나서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작품들이 대부분 종이로 만들어져 이미 부서지기 쉬운 상태이므로 이 예술가의 비전이 빠르게 변한다고. 전지연이 이번에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가. 2005년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리고 4월 15일 예술의 전당에서 있는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에서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지연은 현재 서울에서 살며 작품활동 중이다.

- (1) chameleon masquerading as an elemental shape shifter - something natural appearing as something supernatural.
- (2) mute graphite constellations tinkling in the drear - silent gray stars that seem to make sound in the darkness.
- (3) "The way to the heart is through the stomach." - An old folk saying suggesting that good food can win love.
- (4) your white walled pad - your plain looking apartment

- (1)chameleon: masquerading as an elemental shape shifter: 자연스러운 것을 초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
- (2) "The way to the heart is through the stomach." : 좋은 음식이 사랑을 정취할 수 있다는 뜻의 속담
- (3) your white walled pad: 당신의 평범하게 보이는 방

Rice Market Liberalization:

Economic Sense or Cultural Destruction?

By Andrew Baxter with Eunsook Lee, with assistance from Mr. Keesop Lee.

Probably no other image sums up Korean culture more perfectly than the word 'rice'. Since pre-historic Koreans began to systematically cultivate this crop thousands of years ago, the general credo ever since has been "We are the people of the rice". I have asked Korean children what they can see on the moon, they often tell that they see rabbits milling the crop. And of course Chusook (the most venerated of East Asian holidays) is mainly about celebrating the annual rice harvest.

Given the fact that rice is so entrenched in the national ethos, and that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Year of Rice (2004) has only just ended, you would be excused for thinking that the three and a half million Korean farmers who make their living from growing rice are fairly well off.

Think again! Implications from recent discussions between Korea and major rice exporting nations seriously threaten rice farmers livelihoods, and some even think that the destruction of the lifeblood and foundation of Korean culture is on the way.

At the crux of the issue is South Korea's commitment to World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which it confirmed at the Uruguay (1) GATT round (the precursor of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n 1995. As a result of the Uruguay round the government opened most of its agricultural and fisheries markets to imported products in July 1997. Until very recently imported rice was still subject to a Minimum Market Access Quota (MMA) to protect the Korean rice industry. Last year though, the Roh administration, acknowledging pressure from its major trading partners, expressed a willingness to negotiate the opening of the market, with an agreement finally being

dicts one of the cornerstones of 'the free market' economy because between 1995 and 2002 it paid 7.8 billion dollars in (2) subsidies to its rice farmers, the top recipients being large corporate farms, which were already cost efficient and needed the assistance least. Because this rice is part paid for by the US taxpayer, it helps to make American rice four times cheaper for Korean consumers than the local product. Local farmer groups say it is plainly unfair, clearly illustrating the double standards pervading world trade and (3) globalization in general.

I traveled to get the direct story from Mr. Keesop Lee, a farmer from Yeosu, Kyonggi-Do province, one-hour southeast of Seoul. He is a lot more fortunate than many of his colleagues, because his property lies within an area regarded by many as the best rice-growing region in the nation. Still, he is struggling to earn a decent living for himself, his wife and two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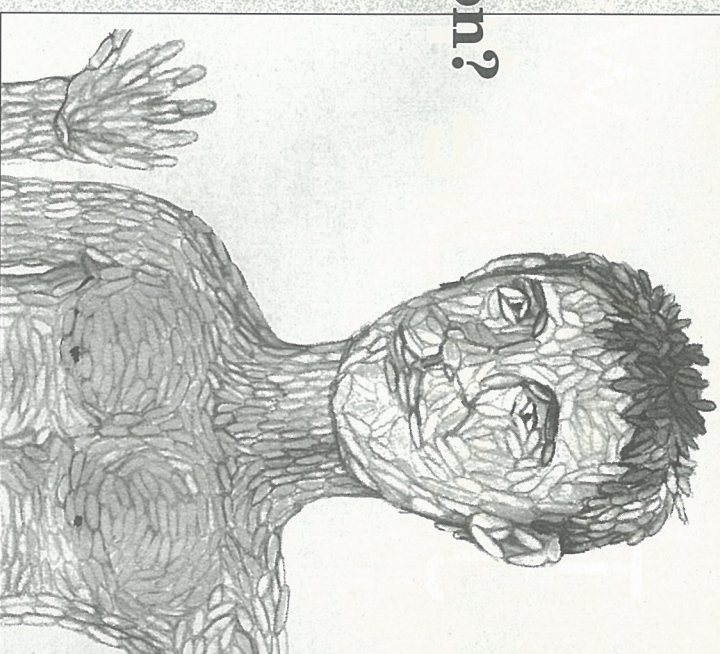
"Farming in general just doesn't pay anymore", he says. "My income is so low that I have to tutor middle and high school kids for their mathematics and English grammar exams".

Figures from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back him up. In the six years from 1996-2002 average farm income (of which rice roughly constitutes fifty percent) rose by a mere five percent, whilst farm debt rose by a whopping seventy percent. Simply speaking, rice prices have not matched their production costs, or the general cost of living for farming families. In the last twelve years, as an increasing amount of growers have sold their land or have had their mortgages foreclosed, the farming population has decreased from 6.6 million, to about maybe half of that. It seems with this, lives have been hollowed out and past dreams confined to the dustbin of memory along the way.

Mr. Lee is rarely at his property these days; he is spending an increasing amount of time tutoring and leaving his wife at home to do the daily chores. "It is far more lucrative and rewarding than farming", he tells me. "I don't know what we would do without this extra income".

He is fortunate that he has an education to do the in demand skill of tutoring. Many rice farmers have just an elementary school level of education, and in reality are poor candidates for the re-training doctrine, which globalization advocates. In Mr. Lee's village, on the side of a platform tower regularly used by local seniors for recreational purposes, is a sign denouncing the deal, which is a figurative call to arms for the local residents to get out onto the streets and protest.

This village has by no means historically been a hotbed of activism, indeed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held in April last year, it was one of the few areas which supported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totally bucking the Uri Party wave which swept Kyonggi-Do. Like-minded people, however, who have been too busy to resort to any effective means of activism or protest in the past, now echo such sentiments throughout the Korean countryside, and feel that this is their last and only chance to stop the crushing of their livelihood.



One man Lee Kyun Hae, a resident of Jangsu, North Jeolla province, achieved world notoriety when he (4) immolated himself at a WTO meeting in Cancun, Mexico, in September 2003. Climbing a barricade that separated himself and thousands of other protesters from the meeting, he plunged a knife into his chest declaring, "The WTO kills farmers". Mr. Lee's story was typical of the average Korean farmer's lot. He had operated a successful mixed farm producing rice, and grazing three hundred head of cattle on thirty hectares of land. However when the Korean government opened the market to cheaper Australian cattle in the 1990's the price of beef collapsed and Mr. Lee slipped into debt and eventually lost everything.

Whilst such actions bring the issue to public attention there are numerous considerations

(5) permeating society at the moment and it is possible that the "people of the rice" are going to have re-arrange their outlook. A housewife in a middle class Seoul suburb echoes the typical response most urbanites give on the issue.

"Of course, I would like to buy Korean rice, I think the quality is better and I want to help my country's farmers. So if I have enough money or if there is a special occasion I will buy it. But I also have to think of my family, if I need to save money I will buy Chinese. American or whatever rice is the cheapest".

Whilst Mr. Lee questions the future for rice growers, he can't help but also think about the new Korea.

"I'm a realist", he says "we can't stop this from happening. It will take about ten years to sort out. In that time many farmers will go bust, yet some may even do better. Because my farm grows Ichon/Yeosu rice, which is a superior grain, I may even do a little better because there's potential for it to be marketed in Seoul as boutique rice".

- (1)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UN agreement to reduce tariffs and import quotas
- (2) Subsidies: financial assistance from government
- (3) Globalization: growth to a global or worldwide scale
- (4) Immolated: to kill or destroy, often by fire
- (5) Permeating: spreading throughout



with nine exporting countries after many months of talks in late December.

For the first time, imported rice can directly be sold to local consumer. 10% of the total import market share will be available this year and 30% by 2010! Perhaps most significantly though, the new MMA can only be maintained until 2014, after which 100% market access must be allowed.

A brief lesson in the direct economic situation shows that international rice trade is not on an even plowing field. The United States contra-



Andrew Baxter and Eunsook Lee are husband and wife, they have two small children. Mr. Keesop Lee is a farmer and private tutor. Contact info: ddddlifeinkorea@yahoo.com

쌀 시장 자유화 !

경제적 센스인가 아니면 문화적 파괴인가?

앤드루 박스티, 이 은숙 옮김, 이 기섭 도움

아마도 다른 어떤 이미지도 쌀이라는 말로 더 정확하게 한국문화를 요약할 수는 없다.

구석기 시대 이후로 한국인은 수천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쌀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한국인에게 쌀은 우리민족의 삶이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통념이 되었다.

나는 한국 어린이에게 달에서 무엇을 볼 수 있다고 물어 보는데, 그들은 토끼가 방아 찧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곤 한다.

물론 주식은(동아시아인들이 가장 반들어 모시는 명절) 주로 음력으로 쌀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다.

쌀이란 것은 국민의 민족 정신으로 정착 되었기 때문에 2004년 국제 유엔 쌀의 해가 바로 끝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쌀 재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삼백 오십만의 한국 농부들이 아주 풍요로워졌다고 생각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한국과 주요 쌀 수출 국가들간의 최근 협상의 결과가 쌀 농부들의 생계를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 문화의 기초와 원동력이 파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1995년 세계무역 위원회의 전신) 우토과이 관세무역 일반 협정에서 확인된 세계 농업 무역 자유화에 서약 했다는 것이다.

우토과이 협정의 결과로 한국 정부는 1997년 7월 11일, 수입 품목인 농산물과 해산물 시장의 대부분을 개방하게 되었다.

이중 최근까지 수입된 쌀은 한국 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최저 시장 개방 한도내 품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노 행정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로 부터의 압력을 인정하고, 시장 개방을 협상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결국, 지난 12월 여러 달에 걸친 협상 끝에 9개 국의 수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처음으로, 수입된 쌀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팔렸다. 전체 쌀 수입분의 10% 만이 올해에, 2010년까지는 30%까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최저 시장 개방 한도는 2014년 까지만 유지 될 것이고, 그 후에는 100% 시장 개방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하려면 국제 쌀 무역이 한국에게 긍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유 시장 경제의 근본 이념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데, 1995년과 2002년 사이에 쌀 경작 농부들에게 보조 장려금 78억원을 지불한 것이다.

최고 액수의 수령인들은 대규모 농장들인데 그곳은

- (1) GATT : 관세 무역 일반 협정
- (2) Subsidies(보조 장려금) :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재정 원조금
- (3) Globalization(세계화) :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는 것
- (4) Imolated(획생된) : 죽거나 파괴되는 것, 종종 불에 의해서
- (5) Permeating(보급하다) : 널리 퍼지다

이미 최소한의 원조가 필요 했던 곳이고, 효율적인 비용이 드는 곳이었다.

이 쌀은 미국 ‘세금 납세자’가 낸 돈의 일부이기 때문에, 미국 쌀이 한국 현지 쌀보다 소비자들에게 4배나 더 싸게 공급되도록 만든다.

현지 농부 단체도 그것은 명백히 불공정하고, 세계 무역의 보급과 세계화에 반하는 불공정한 사례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나는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1시간 거리인 경기도 여주에 사는 이기섭씨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녀왔다. 그는 같은 처지의 농부들에 비해 좀더 운이 좋은 편이었는데 그의 논밭이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쌀을 생산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과 아내, 아이들을 위해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가 말하기를 “대체로 농사를 지어서는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합니다.” “수입이 너무 적어서 나는 중고생들에게 수학, 영어 문법 시험 위주의 개인 지도를 해야만 합니다.”

전국적인 통계에 따르면 그의 말은 사실이다.

1996년부터 2002년 까지 6년 동안에 평균 농촌의 수입(쌀이 대략 50%를 차지하고)은 단지 5% 증가한 반면 농촌 부채는 70%나 경증 뛰었다.

간단히 말해 쌀 가격은 그들의 쌀 생산비나 농촌 가정의 일반적인 생계 비용에 상응하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12년 동안 쌀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땅을 팔거나, 저당 잡힌 땅들이 경매에 들어가는 수가 증가함으로써, 농사 짓는 인구는 66만 명에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것은 마치 삶이 파괴되고 지난 시절의 희망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것과 같다.

이기섭씨는 요즘 거의 농사일을 하지 않는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과외 하는데 할애하고, 대부분의 집안 일은 그의 아내에게 맡겨 놓는다.

“과외가 농사일보다 더 수입이 낫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한다.

“내게 이런 과외 수입이 없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과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그는 대학교육을 받아서 그나마 아주 다행이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마쳤고, 실제로 그들은 세계화를 주장하는 재교육 정책의 거대한 지원자일 뿐이다.

이씨의 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역 노인들의 테크레이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라점 위에, 그 협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

게 거리로 나와서 항의 시위를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부틀피도 같은 것이다.

이 마을은 역사적으로 행동실천 주의의 운상이 되어 본적이 없다. 지난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적인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몇 안되는 경기도 지역의 하나였고 이 지역을 휩쓴 열린 우리당의 파도를 완전히 반대한 곳이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항의 시위를 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기에는 일하느라 너무 바빴던 그들이 지금은 한파음이 되어 한국 시골 전역에서 항의 시위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이 그들의 마지막이자 그들의 생계를 짓밟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장수 지역 주민인 이경애라는 한 남자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건에서 열린 세계 무역 위원회 회의에서 그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 회의에 항의하는 다른 수천명의 시위자들에게서 벗어나 바리게이트에 올라가 그는 “세계 무역 위원회는 농부들을 죽이고 있다”고 외치면서 칼로 그의 가슴을 찔렀다. 이씨의 이야기는 한국 일반 농부들의 운명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쌀과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는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30 헥타르의 땅에서 300마리의 소를 방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1990년대에 더 쌀 가격으로 소 시장을 호주에게 개방 했을 때 소고기 가격은 폭락했고 이씨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결국은 파산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대중의 관심을 불러오는 데에는, 그 당시 사회에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다.

“쌀이 주식인 사람들이 이들 자신들의 미래의 전망을 새로 정립할 것이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서울 근교의 한 중산층 주부의 대답으로 반영하고 있다.

“물론 나도 한국 쌀을 사고 싶지요. 질적인 면도 더 낫고, 우리나라 농부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돈만 넉넉히 있고, 특별한 경우이면 한국 쌀을 살 거예요. 하지만 나 또한 내 가족을 생각해야만 해요. 돈을 저축할 필요가 있다면 중국 쌀이든 미국 쌀이든 상관없이 제일 싼 쌀을 사게 될 거예요.”

이기섭씨가 쌀 경작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만, 그는 또한 새로운 한국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가 말한다. “우리는 이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데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안에 많은 농부들이 파산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잘될 수도 있습니다. 내 농장은 최상품인 이천/여주 쌀을 재배하기 때문에, 나도 어찌면 더 나아 질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이곳 쌀이 고급 쌀로써 서울에서 상품화 될 잠재성이 있으니까요.”

앤드루 박스티씨와 이은숙씨는 부부이고, 두 명의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다.

이기섭씨는 농부이자 개인 과외 선생이다.





With the Gang of Four (네 명의 동호인과 함께 예술인에 대해)

한국인들과 외국인들 사이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ddd”는 “(Gang of Four)네 명의 동호인” 즉, 생생한 언어로 현실세계를 알아보고, 흥미로운 곳에 대해 실용적으로 얘기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미아리 맹인 점쟁이촌”에 대한 이야기이다.

Introductions(소개)

캐린: 안녕하세요!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영어선생님이예요.

준성: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캐린: 예, 한국에서는 스코틀랜드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서울에서 신년파티에 갔다가, 우연히 스코틀랜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킷(Kitt) 스커트를 입고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쳤어요.

캐리: 저는 서부 캐나다에서 온 선생님이고 한국에 4년간 지내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위를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준성: 저는 휴대폰 게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고려대학교에서 프로그램 학위를 마치고 위해서 아직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캐리: 그럼 마르쿠스는 연세대학교이고 준성은 고려대학교이군요. 당신들은 서로 적이겠군요.
준성: (웃으며) 아마도 그럴 겁니다.

예술인을 찾아가며

우리는 4호선 성신여대 지하철역에 도착한다. 7번 출구에서부터 우리는 맹인 점쟁이 촌으로 알려진 미아리고개거리를 5분에서 10분 정도 걷는다. 복지관 센터 주변에 오래된 집들로 밀집되어 있는 점쟁이촌은 메

인도로에서 왼쪽 좁은 길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은 어둡고 춥다. 눈도 조금 흩날린다. 미아리 고개는 우리들 앞에 가파르게 올라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있는 인자한 예술인을 보기위해 줄무늬로 되어진 텐트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앞에 있는 낮은 테이블위에 점자법으로 씌어진 사주팔자(The Book of Changes) 책이 있다. 사실상 테이블 위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그와 그의 아내는 그것들을 20분 동안 조사하는데 바쁘고 확실한 목소리로 우리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예술인: (톤이 높고 머물 거리는 소리로) 언제 태어났으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캐리가 질문에 답한다.

예술인: 10년 안에 당신은 사회복지일로 사람들을 편성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게 될 것이예요.

마르쿠스:(속삭이며) 이것만 듣고 여기서 나가시오.

(우리는 한사람의 복채 3만원을 내고, 다시 밖으로 나온다.)

마르쿠스: 그는 별로 신봉치 않았어요. 그는 머물거렸고, 단지 애매한 것들만 얘기했어요.

준성: 우리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마르쿠스와 준성은 웃는다.)

캐리: 근데, 벽에는 수많은 상들과 학위가 있었는데요.

마르쿠스: 그것은 아마도 단지 장식일 뿐 인거 같어요.

캐리: 알았어요. 다음번에는 마르쿠스나 준성 둘 중에 한 명이 운세에 대해 들어보는 게 어때요?

마르쿠스와 준성: 싫어요.

준성: 만약 내 운세가 불행이라면 듣고 싶지 않아요.

캐린: (한숨쉬며) 글쎄. 난치하겠지만 그냥 해볼래요.

우리는 방이 열을 지어있는 옆쪽 안마당이 있는 또 다른 건물로 들어간다. 그 방들은 아이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전화로 운세를 읽어주는 수많은 전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우리는 무뎠목하게 보이는 여자 예술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간다. 그녀도 역시 사주팔자(The Book of Changes)란 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기 전에 혼드는 작은 유리 상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녀의 테이블 앞에 뜨거운 온돌바닥에 앉아있다. 그리고 캐린에 관해 질문한다.

예술인: 캐린은 연예인이 될 가능성이 많군요.

(모두 웃는다)

캐린: 글쎄요. 한국에서 영어선생님으로써 몇몇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다고 말합니다. 저의 언니에 대해 말해주세요.

예술인: 캐린의 언니는 캐린과 매우 다르군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돈을 주는데 그녀는 그만큼 돌려받질 못하네요. 그녀는 최근에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방안에 있는 TV가 요란하더니 조용해진다.)

캐린: 그녀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술인: 그녀는 낙태 또는 무슨 일을 겪었다고 책이 말해주고 있네요.(우리 상자를 흔들고 주문을 흥얼거리며) 30살 이후에 그녀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하면 안 돼요.

그 경험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는 나무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한 바에 간다. 거기에는 아마도 30대들로 보이는 몇몇 손님들이 있다. 그 바와 사람들은 서울을 기준으로 양쪽 다 조금 넓고 넓어 보이고 평범해 보인다.

마르쿠스: 이곳이 고대(고려대학교)지역이군요. 저는 이곳에 단지 몇 번 왔었어요.

캐리: 글쎄, 이곳은 고대에서 가까운 곳 성신이에요.

캐린: 제 생각에 이곳은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캐리: 고대는 전통적이고 연세는 현대적이고 국제적이라고 들었어요.

마르쿠스: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학생들은 부유하고, 흔히 하는 말로 연세대학교에 오면 가정적임 받게 되는 법새는 '향수냄새다'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죠.

준성: 그러나 고대의 등록금은 매우 비싸요. 학교들이 정말로 그렇게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연세와 고대는 서로 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캐리: 그러면 그 예술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르쿠스: 이화여대 앞의 카페에는 예술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개 그들은 단지 당선들이 듣고 하고 싶은 것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술인들이 더 괜찮아요.

준성: 한국에는 두 종류의 예술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당으로(한국에서는 무당) 그들은 혼을 부르고 춤을 춥니다. 두 번째는 사주팔자 책을 읽는 사람들이예요. 우리는 두 번째 종류의 예술인을 보았어요.

캐리: 차이점이 무엇인가?

준성: 사주팔자 책은 일종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3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참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당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마르쿠스: 무당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리고 때때로 칼 위를 걸어 다니고요. 무당에게 가는 건 매우 비쌌니다.

캐리: 우리가 만난 두 예술인중에 누가 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마르쿠스: 확신을 가지고 말한 여자 예술인이 더 세부적인 것을 말했어요.

준성: 저는 그녀의 유리상자가 싫어요. 그녀는 계속 상자를 흔들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 그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쇼 인거 같아요.

캐린: 글쎄요, 그녀는 나의 언니에 대해 맞혔어요. 저의 언니는 낙태를 했거든요.

캐리: 정말요? 놀랍군요.

마르쿠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맞히진 못했어요. 우리는 맞힌 것들에 대해서만 판단 할 수 없고 틀린 것들을 무시 하면 안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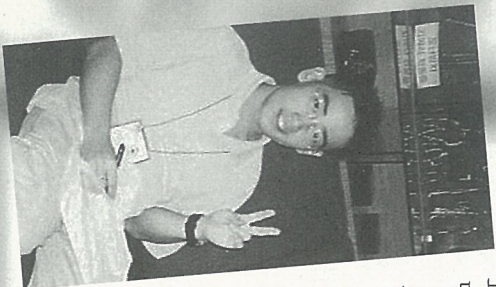
캐리: 저는 그 운세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이는 예술인들은 믿고 싶어요. 미아리 맹인 예술인들의 상당수가 그들의 직업을 잃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운세를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듣고 있다고 들었어요.

준성: 그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가는 것이예요.

마르쿠스: 글쎄요. 저는 가아할 것 같아요.(농담) 이곳은 편하지가 않아요. 신선, 연세대 주변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모두 웃음) 그러면 저는 편해질 겁니다.

명지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임스에 의해 번역됨

Gang of Four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ddldlifeinkorea@yahoo.com 에 연락해 주세요.



OFF TO THE FORTUNE TELLER

With the *Gang of Four*



what day, what time?

Kari answers the question.

Fortune Teller: In about 10 years you will organize people to do some social welfare work. You will have enough money that you will be able to help people...

Marcus: (whispering) After this, let's get out of here.

(We pay the fee for one person, ₩30,000, and we are outside on the street again.)

Marcus: He was no good. He was mumbling and saying only vague things.

Jun Sang: We could hardly understand him and we're Korean. (Marcus and Jun Sang laugh.)

Kari: Well, on the wall there were many awards and degrees.

Marcus: Just decoration maybe.

Kari: Okay, Marcus or Jun Sang, will you have your fortune told next?

Marcus and Jun Sang: No way.

Jun Sang: I don't want to hear my misfortune if it is a misfortune.

Karen: (sighing) Well, it might be embarrassing, but that leaves me.

We enter another building, into a courtyard flanked by rows of rooms. The rooms are filled with children and relatives and different kinds of phones to do 'over-the-phone-fortune readings'.

We are taken to a room with a hard looking female fortune teller. She also has The Book of Changes, and also a small glass box she shakes before reading. We sit on the hot ondol floor in a group in front of her table, and ask about Karen.

Fortune Teller: Karen should be an entertainer.

(All laugh)

Karen: Well as an English teacher in Korea some people say I already am one... Ask about my sister.

Fortune Teller: Karen's sister is very different from Karen. She gives a lot of love and money to people, but she doesn't get enough back. Has she had some physical problems recently?

(The TV in the other room is deafening and then quiet)

Karen: She has had depression.

Fortune Teller: The book says she had an abortion or something. (shaking the glass box and humming) After 30 she should get married, but not before.

Our Thoughts about the Experience

We go to a bar with a wooden interior. There are only a couple of customers, maybe in their 30s. Both the bar and the people seem a little old and ordinary by Seoul standards.

Marcus: So this is the KoDae (Korea University) area. I have only been here a couple of times.

Kari: Well it is Sungshin, near KoDae.

Karen: I think this area is pretty good.

Kari: I heard that KoDae is traditional and Yonsei is modern and international.

Marcus: And the stereotype is the students are rich. The saying goes: when you come to Yonsei, the first thing you smell is the perfume.

Jun Sang: The tuition at KoDae is very high though. I don't know if the schools are really so different. People say that Yonsei and KoDae are enemies, but I think they are maybe the closest friends.

Kari: So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fortune tellers?

Marcus: There are fortune tellers in cafes in front of Ewha University, but usually they only tell you what you want to hear. So these fortune tellers are better.

Jun Sang: There are two kinds of fortune tellers in Korea. The first are shaman (mudang in Korean), who dance and call down a spirit. The second kind are the people who read The Book of Changes. We saw the second kind of fortune teller.

Kari: What is the difference?

Jun Sang: The Book of Changes is like a science. I studied it for three months, and I think it is reasonable. A shaman is not reasonable.

Marcus: A shaman dances and screams, and sometimes even walks on swords. Going to a shaman would be very expensive.

Kari: Of the two fortune tellers we met, who was more skillful do you think?

Marcus: The woman spoke with confidence and said specific things.

Jun Sang: I didn't like her glass box. She kept shaking a box. What was that? I think it was just show.

Karen: Well, she was right about my sister. My sister had an abortion.

Kari: Really? That is something.

Marcus: But she wasn't right about everything. We can't just focus on the correct things and ignore the things she got wrong.

Kari: I don't know if the fortunes are true, but I like to support those old people. Many of those blind Mia fortune tellers are losing their jobs. I heard that people just get their fortunes told on the internet or on cell phones now.

Jun Sang: That can never be the same... the realest thing is to go.

Marcus: Well, I think I will go. (joking) I don't feel comfortable in this area. I have to go back to Shinchon, the Yonsei University area. (All laugh.) Then I can be comfortable.

Translated by James. He studies American literature and translation at Myongji University

WANT TO BE PART OF THE GANG OF FOUR?
CONTACT dddlifeinkorea@yahoo.com

In order to explore friendship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and to help with studying Korean and English, "DDD" offers the Gang of Four. A practical chat at in interesting place exploring the real world with real language. This first installment is at the 'blind fortune telling village of Mia Ri'.

Introductions

Karen: Hi. I'm an English teacher from Scotland.

Jun Sang: I've never met anyone from Scotland in Korea before.

Karen: No, there aren't many of us. But at a New Years' party in Seoul I ran into a group of drunk people wearing kilts. Scottish for sure

Kari: I'm a teacher from western Canada, and I've been in Korea for four years.

Marcus: I just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with a degree in Sociology.

Jun Sang: I work full-time designing games for cell phones, but I'm still taking classes to complete my degree in programming at Korea University.

Kari: So Marcus is from Yonsei and Jun Sang is from KoDae. You are supposed to be enemies!

Jun Sang: (laughing) Maybe we are enemies. Today we will find out

Going to the Fortune Teller

We arrive at Sungshin University Subway Station, Line No. 4, Exit No. 7. From there, we walk for five or ten minutes up the street known as Mia Kogae to the Blind Fortune Teller's town. The 40 or so businesses of the town are clustered in old houses around the Welfare Center for the Blind, on a narrow street to the left of the main road. The evening is dark and cold. It snows a little. The hill rises sharply ahead of us.

We enter a striped tent to see a grandfatherly fellow sitting on the floor. In front of him on a short table is The Book of Changes in Braille. Actually there are many books on the table, and he and his wife are busy for 20 minutes looking through them, answering our questions in uncertain voices.

Fortune Teller: (in a high, mumbling voice)
When were you born? What year, what month,

IN VINO ES VERITAS IN WINE IS TRUTH

by John M. Rodgers with Sarah Choi



Wine is bottled poetry.

ROBERT LOUIS STEVENSON

Now that wine is becoming something beyond avant-garde here in Korea it is garnering momentum and popularity with many of the younger generation. True, Soju and beer still rule the peninsula but there is an increasing realization that there is something beyond slamming and slug-ging- the depth and magnitude that drinking wine involves and with that the forte that follows.

On any given night in the twelve-something-million-person capital one can find wine drinkers casually sipping on a glass of French Bordeaux, Italian Chianti, Australian Chardonnay, Chilean port or any number of other vintages. With this influx of interest in wine and increased consumption has come, of course, a faction of those within and outside the country who are seizing and utilizing the opportunity to implement and expand the business associated with such a windfall.

Five years ago the Westin Chosun Hotel smelled the beginnings of this wine front and opened BizBaz, at first an a la carte style restaurant with a reasonable selection of wine,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COEX Convention Center in Kangnam. BizBaz has come to define the growing wine craze. Since its opening it has transformed into a 420 seat buffet with 150 kinds of food and 230 vintage wines ranging in price from 30,000 to 1,000,000 won. Bizbaz's Sommelier, Kim Seung-mo, has been with the restaurant for 3 years watching the wine industry evolve. "It has changed a lot with 80% of our customers now drinking wine," said Kim. When asked about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upturn in wine interest Kim reaffirmed the health perspective, "with the current wave of well-being and the interest in good health many people know that a little wine can be good for the body." Over the last 3 years the restaurant has had a steady increase in sales up to its current average of 10,000 customers a month. In December the restaurant was fully booked every night, had more than 12,000 customers and sold in excess of 1,200 bottles of wine. The restaurant also has eight private rooms for those who choose to reserve and relish a secluded setting at no extra cost. Despite being in the center of the affluent business sector, the restaurant's clientele is nearly evenly composed of families and businesspeople according to Account

Director, Lynette Kim, who handles banquet reservations and additional customer accounts. "It is about fifty-fifty between businessmen and women and families," said Kim.

An individual who also read the wine wave is Choi Song-soon, a charismatic Korean in her late 30's, who has passionately harnessed the chance to educate, supply, connect and entertain the wine drinking community of Korea.

As President and CEO of WINE21.com, the top Internet wine site in Korea, she has personally vaulted to the top of the wine trend here. She not only has literally streamlined product information and availability, she also opened up her own wine bar, Chateau 21, a member club located in Apgyeong-dong last November. Originally involved in international business, Ms. Choi found herself aloof at company dinners when wine was consumed and discussed. "I had a great lack of education so I felt I had to learn more and began to study by myself," said Choi. Soon her curiosity and spare-time studies morphed into a growing desire for something more intimately involved and outwardly inspiring. "My hobby became my job," said Ms. Choi with a smile. "As I learned more I wanted to show people that wine is interesting and friendly."

Most of the wine community is connected through Wine21. There are more than 600 wine bars now in oper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site, which provides a constant medium for discussion, advice, and information. The site tells wine drinkers throughout the peninsula all the logistics for parties, tastings, openings and so on. This allows any member of the online community to be in touch with innumerable opportunities for wine enjoyment. Someone who's planning on visiting Seoul for the weekend can look up all the info necessary to find the weekend's happenings.

When Ms. Choi first opened Chateau 21 she decided to allow members some investment deals via the Internet. She posted shares at about three million won each, selling twenty to thirty at three intervals for a total of eighty shares. They sold out almost immediately. "People proved that there's great interest and enthusiasm for wine here," commented Choi.

One Saturday night provided an ideal opportunity for Chateau 21 to display its own popularity when Ms. Choi held a wine party for members and guests to celebrate the culture and evolving era of wine. It also offered a glimpse into the social world of wine as it is here. A slight aire of refinement filled the angular underground bar which was full of trendy men and women in their 30's and 40's mingling with English and Korean. The oldest guest was French Wine Commissioner Yves Dericand. Dericand, in his late 50's, works at the French embassy as a kind of spokesman and ambassador for the wine industry here. He finds himself quite often cavorting amongst the many wine drinkers in the innumerable wine bars throughout Seoul. He receives invitations by the dozens each week and picks his places. He is clearly optimistic regarding the future of wine in Korea. "Korean people are coming around to the idea that fine wine equals fine life," said Dericand. He also sees a

parallel here with an old adage in France. "Travel creates education as does experiencing wines." Also among the crowd were members who normally attend Chateau 21's weekly wine tastings held every Tuesday where an expert chooses specific wines for examination and explanation. Grace Yu, 45, was one such member. "I'm not a big partier but I want to get involved with the intelligent side of wine drinking," said Yu. Yu is a great example of the new wine drinker here who is interested in the intricacies of wine etiquette and knowledg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ine and food, certain grapes, vineyards-it's amazing."

As usual in Apgyeong several stars dropped in during the party to partake of the festivities. One of the stars was Mr. You Yol, a Korean singer-song-writer who considers himself to be somewhat of a connoisseur of wines. Yol began drinking wine some ten years ago thanks to an ex-girlfriend. "A long time ago, probably ten years ago, my ex-girlfriend liked to drink wines rather than drinking Soju or beer," said Yol. "Whenever I met her she loved to drink wines. That is how I started drinking wines." Yol said that many celebrities enjoy drinking and learning about wine because it is one of the finer things in life and carries a bit of status. "Many of my friends have become very interested in wine because it is considered to be healthy and there is a lot of knowledge behind it."

At many of the wine parties held here in Korea there is a performance of some sort which often amalgamates aspects of art and elements of wine enjoyment. At Chateau 21's party Ms. Choi did exactly that filling a frontal screen with digital images of Salvador Dali and then following with a live individual dance performance. Both were entrancing. The following was captured by DDD during the mid-party performance: The lights dimmed down to the level where it might have been time for the crowd to fool around with each other but the screen that I have not been noticing is now shooting off while at the same time absorbing images at the beat of the trip-hop soundtrack. Buddha appears, his matted hair rolls digitally transformed into crops of grapes covering his head. Salvador Dali's "Crucifixion" holds the screen attention span for three full seconds until Buddha comes back with the Diamond Eye projecting a who is who of mind expanders and consciousness benders. H.G. Wells, Aldous Huxley, Pythagoras and a time magazine cover of the 60's of the original and real Woodstock all take up part of the screen. More trip-hop music take up purpose. Light colors shooting out from stationary objects blending the room with all the cuts of cubism. Those big nasty elephants from Lord of the Rings are now carrying sound systems at their sides.

Green and blue Lotus plants are sucking

1. Slamming and slug-ging: drinking quickly and excessively
2. A windfall: a sudden gain
3. Harnessed: utilized
4. Streamlined: organized with least resistance
5. Aire of refinement: an atmosphere of intelligence
6. Sucking face: kissing
7. Bacchanalian: drunken festivity (Bacchus-Greek god of wine and fertility).

face with the stuck out tongue of the Rolling Stones icon. I wonder why Hongdae isn't like this?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that I used the word 'hip' and meant it until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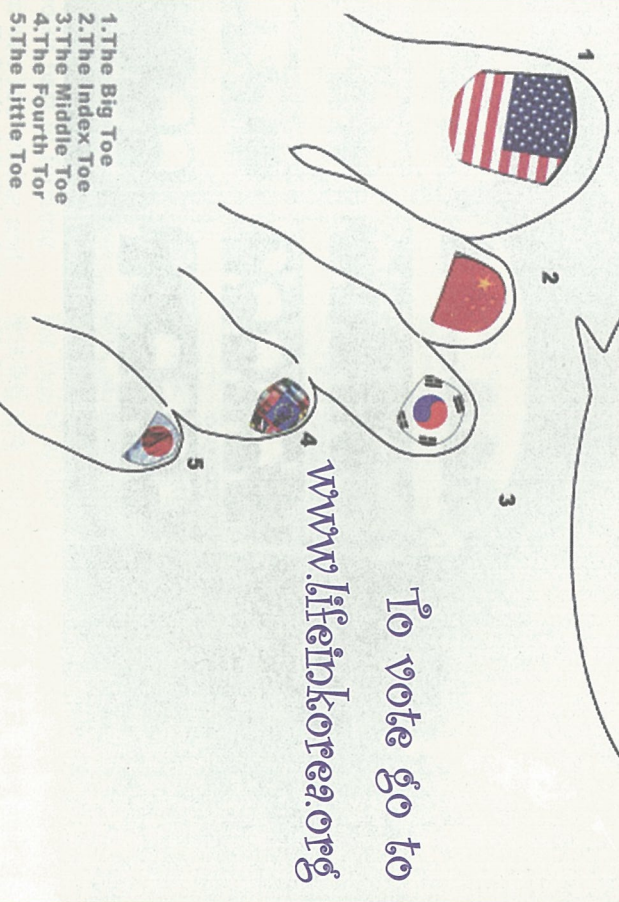
The screen is turned off. The house lights beam onto the candles and incense is lit. The music and chatter of the room slow down and so does all our breathing. It is time for the "Tiger Ballet." A guy as thin as a chewed pencil and graceful as a falling cherry blossom is blessing the room and this night's wine harvest. The Bacchanalian dancer barefoot in traditional pants approaches the alter: different levels of candles, then an unruly cut of Polynesian sagebrush and in front an active metronome. He circles around the alter placing floating balloons with a solemnness that suggests, 'Have a Good Time' is more than a commercial jingle. The music is a slow, electric temple chant and at some mischievous level of consciousness anyone could wonder if he was going to pop a colored balloon with a stick of incense. He did not. Now he sprays "Silly String" around the alter and my lips part open in a grin.

The crowd is cosmopolitan and like any cosmopolitan crowd anywhere they are only half-aware of how awestruck they actually are while witnessing this blending of eastern and western celebration.

Following the performance the crowd, somewhat mesmerized, returned to wining, trading tips and awaited what the night could do to outdo the already done. In response to questions about the performance Ms. Choi offered, "I believe expressionism is an important part of the whole experience. Wine expresses itself through flavor and aroma as we also have kinds of expression to reveal ourselves." So, with an eye into the wine culture here and now, it is clear that Koreans are stepping beyond the basic drink till you drop and are instead gaining an appreciation for and understanding of what the wine culture has to offer. It is certainly not expected to skyrocket instantly but yet, like wine in a cask, it is consistently improving and with that distributors are slowly yet surely bringing a greater variety and number of wines into the country. Perhaps, one day, as Soju accompanies many meals, so will wine replace it. As Ernest Hemingway said, "In Europe we thought of wine as something as healthy and normal as food and also a great giver of happiness and well being and delight. Drinking wine was not a snobism nor a sign of sophistication nor a cult; it was as natural as eating and to me as necessary."

Globe-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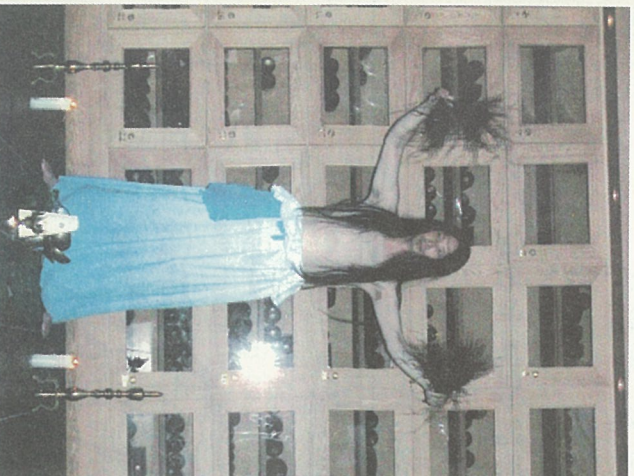
Which Toe Is The Sexiest?



IN VINO ES VERITAS. 와인 속에 진리가 있다.

“ 와인은 병에 담긴 시이다.”

로버트 루이스 스톤



와인은 이제 이곳 한국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의 전유물을 넘어서,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소주나 맥주가 아직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와인 속에는 두드러고 흥청거리는 것 이상의 깊이와 품격, 그에 따르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 12만 명의 수도 서울의 매 일 밤마다, 우리는 프랑스 산 와인을 음미하는 와인 애호가를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와인에 대한 관심의 쇄도와 급격히 증가하는 와인 소비량과 더불어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국내외의 사업체나 단체들도 함께 증가 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5년전, 조선 호텔은 이 와인 시대의 도래를 감지하고 강남의 Coex 컨벤션 센터의 2층에 라카르테 스타일의 레스토랑 BizBaz를 열었다. BizBaz는 증가하는 와인 열풍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개장 이후, BizBaz는 150여종의 음식과 3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230여종의 다양한 와인을 제공하는 420석 규모의 뷔페식 레스토랑으로 변모하였다. BizBaz 의 와인 담당자인 김성모씨는 3년동안을 이 레스토랑에서 와인 산업의 성장을 지켜 보았다. 그는 “이제 우리 고객의 80%가량이 와인을 즐김만큼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와인 인구의 증가에 대한 이유를 묻는 말에 그는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와인의 인기의 건강문적 측면을 재확인 시켰다. 지난 3년간 이 레스토랑은 꾸준히 성장하여 월평균 10000여명의 고객이 찾아오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매일 밤 예약이 매진되었고 12000여명의 고객에게 1200명 이상의 와인을 판매하였다. 이 레스토랑은 또한 부가 비용없이 독립된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8개의 별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회식 예약 및 고객 회계를 담당하는 Lynette Kim 씨에 따르면 활발한 비즈니스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스토랑의 고객은 비즈니스 고객과 가족 고객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

“비즈니스 고객과 일반 가족 고객의 비율이 약 50대5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 열풍의 한 가운데, 이 흐름을 한국 사회에 와인 음주 문화를 교육하고, 공급하고, 연결시키고 즐기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려고 열정적으로 분투 하고 있는, 카리스마적인 30대 후반의 한국 여성, 최성순 이 있다.

국내 최고 인터넷 와인 사이트인 WINE21.com의 회장 겸 CEO로서 그녀는 이 와인 유행의 정상을 향해 발돋움 하고 있다. 그녀는 단지 제품 정보나 구매 가능성 등의 정보를 원활히 할 뿐 아니라, 지난 11월, 압구정동에 그녀 자신의 회원제 와인 바인, Chateau 21을 개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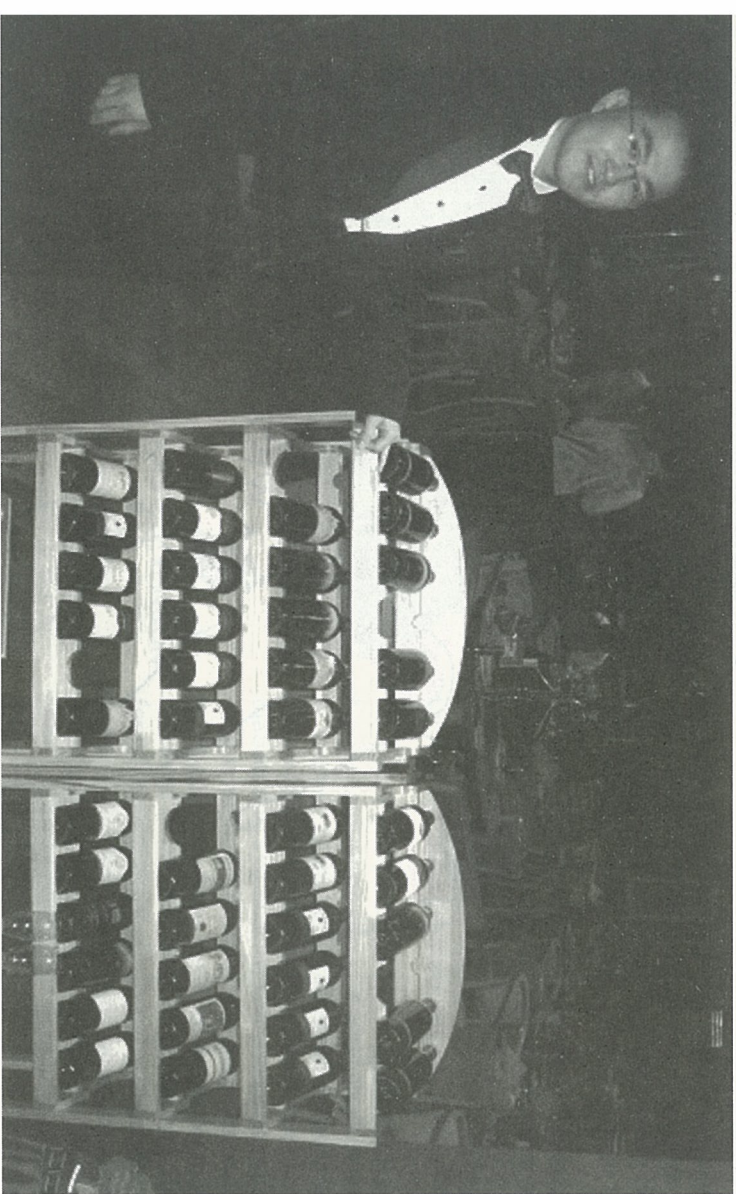
본래 국제 무역에 종사하고 있던 그녀는, 희식 자리에서 토론 주제가 와인으로 떠오르거나 와인을 마시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곤 했다고 한다. “나는 와인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했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혼자 와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곧 그녀의 호기심과 여가 시간을 활용한 와인 공부는 무언가 좀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외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발전했다. “나의 취미가 나의 직업이 된 것이지요.” 하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는 와인이 정말 흥미롭고 친근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와인 커뮤니티는 Wine21 통해 연결 되어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지금 한국에는 600여 개의 와인 바가 개설되어있고, 이 사이트는 이들에게 토론, 조언, 정보 등, 와인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교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 사이트는 한반도 전역의 와인 애호가들에게 파티, 와인 시음, 와인 병따기 등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 이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든 멤버들에게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만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말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성순 씨가 Chateau 21을 열었을 때, 그녀는 회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 그녀는 총 80개의 배당분을 3번으로 나누어 각 300만원씩 20내지 30지분씩 팔았다. 이것은 즉시 매진 되었다.” 사람들이 와인에 대해 높은 관심과 열의

가 있음을 입증한 일”이라고 최씨는 말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최씨는 회원들과 게스트들을 초청하여 와인 시대의 도래와 그 문화를 축하 하기 위한 파티를 열어 Chateau 21의 인기를 과시하였다. 이것은 또한 와인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얹힌 가운데, 30대, 40대의 멋쟁이 남녀들이 가득 찬 모난 지하의 바는 세련된 분위기가 넘쳤다. 가장 나이 많은 게스트는 프랑스 와인 담당관인 Yves Dericaud 씨였다. 50대 후반의 그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대변인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와인 산업 시절 역을 하고 있다. 그는 종종 서울 전역의 수많은 와인 바를 누비며 많은 와인 애호가들과 시간을 보내곤 한다. 매주 수십여 곳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갈 곳을 선택해야 하기도 한다. 그



화면이 꺼졌다. 실내 조명이 꺼지고, 향에 불이 붙었다. 실내의 음악과 이야기 소리가 잦아들고 우리의 숨소리마저 멎는듯하다.” 타이거 발레” 시간이다. 장작개비처럼 갱 마르고 떨어지는 벗꽃잎처럼 우아한 한 남자가 나와 이 밤의 와인 축제를 축하하고 있다. 바카스축제의 무용수 같은 맨발의 댄서가 제단으로 다가가건다.: 서로 다른 높이의 촛불들,그리고 들쭉날쭉 잘려진 폴리네시안 산쑥, 그 앞에는 폭닥거리는 메트로놈.그는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며 근엄한 몸짓으로 풍선을 놓는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는 문구는 광고 이상의 울림으로 다가온다. 음악은 느린 전저음의 종교적 암송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혹시나 그가 장난스레 향대로 풍선을 터뜨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그러나 아니다. 그는 제단 주위에” Silly String” 이라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는 빙그레 미소 짓는다.

군중은 다국적이고, 다국적 군중은 의례 그렇듯 자신들이 지금 동서양의 의식의 합일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는지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공연이 끝나고, 다소 취면에 걸린듯한 군중은 다시 와인으로 돌아와 의견을 교환하고 이미 보여진 것 보다 더 한 무엇이 또 보여질지를 기다렸다. 공연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최성순씨는 “저는 표현주의가 모든 경험의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할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듯이 와인은 맛과 향기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고 말했다. 이곳에서 와인 문화를 엿보았듯이 한국은 이제 기본적인 음주를 넘어서 와인 문화가 제공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와 감상으로 다가가고 있다. 물론 일순간에 갑작스런 부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마치 통에 담긴 와인처럼, 그것은 지속적으로 진보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공급자들 또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더 다양한 와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언젠가는, 와인이 소주를 대신해 많은 식사의 동반자가 될지도 모른다. 에네스트 헤밍웨이는 한때 말했다.” 유럽에선, 와인을 음식만큼이나 건강에 좋고 정장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행복과, 건강과 기쁨을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와인을 마시는 것은 과시욕이나, 체면치레나, 발난 유행이 아니다. 그것은 먹는 행위 자체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내게는 필수적 이기까지 하다.”

1. Slamming and slugging: 두드리고 놀아나는 두드리고 흥청 거리는.
2. A windfall: 좋은 기회,행운,호기
3. Harnessed: 이용하다
4. Streamlined: 유선형의
5. Air of refinement: 세련된 분위기
- 6.sucking face: 얼굴을 빨고있다
7. Bacchanalian: 바카스 축제의 무용수 같은

는 한국에서의 와인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한국인들은 이제 좋은 와인은 곧 좋은 삶을 의미한다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그는 프랑스의 한 격언이 이곳에서도 적용됨을 본다고 했다.”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듯 와인을 경험 하므로써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많은 군중들 틈에는 또한 제주 화요일마다 Chateau 21에서 전문가가 특정 와인을 선택해 시음하고 설명을 하는 주간 와인 시음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45 세인 그레이스 유씨 도 그 중 한 사람 이다.” 저는 대단한 파티 애호가는 아니에요. 다만 와인을 마시는 일의 지적인 면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는 와인에 대한 에티켓과 지식의 까다로움에 흥미를 느낀 새로운 와인 애호가의 전형적 예이다.” 와인과 음식,특정 포도, 포도원 등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양구정동에선 흔한 일이지만 몇몇 연예인들도 이 파티의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하여 잠시 얼굴을 보였다. 이들 중에 한국의 싱어송 라이터인 유열씨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일종의 와인 감정가로 여기고 있었다. 유열씨는 10여 년 전쯤 당시 자신의 여자 친구 덕택에 와인을 접하기 시작해서 자신의 취미로 만들었다고 한다. “오래 전에, 아마 한 10년 전 쯤에 당시 제 옛 여자 친구가 소주나 맥주 보다는 와인을 좋아했지요. 우리가 만날 때 마다 그녀는 와인을 마시곤 했답니다. 그것이 제가 와인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입니다.” 유열씨는 자신이 처음 맛본 와인이기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테리산 ‘Chianti Classic’이 제가 처음 맛본 와인이지요”. 유열씨는 와인이 인생을 더 멋지게 하고 다소 품격이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유명인사들이 와인을 즐기고 와인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했다. “제 친구들 중 상당 수도 와인이 건강에도 좋고 그 뒤의 숨은 지식에 매료되어 와인에 대해 더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에서 열리는 많은 와인 파티는 예술적 요소와 와인의 묘미를 결합시킨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곤 한다. Chateau21의 파티 에서도 최성순 씨는 전편의 스크린을 살바도르 달리의 디지털 이미지로 채우고 1인 라이브 댄스 공연을 보여주었는데, 둘다 모두 환상적이었다.

다음은 DDD가 포착한 파티 중반의 공연 내용 이다: 군중들이 다소 긴장을 풀고 느슨해 질만큼 조명이 희미해진다. 그러나 그전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스크린에서, 트립합 배경 음악의 비트와 함께 시선을 사로잡는 이미지가 쓰여져 나온다. 부채 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의 머리카락이 디지털 영상으로 포도 송이로 변형되어 그의 머리를 뒤덮는다.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에 못박히심”(Crucification) 몇 초 동안 화면을 채우고 다시 구 도자들의 모습을 투사하는 Diamond Eye 와 함께 부채의 영상이 떠오른다. H.G. Wells, Aldus Huxley, 피타고라스 등과 원본 우드스톡의 60년대판 타임지 커버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더 많은 트립합 무적이 의미심장하게 흘러 나오고 고정된 물체로부터 쓰여져 나오는 밝은 빛이 실내의 모든 입체들과 뒤섞인다.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던 거대한 코끼리들이 사운드를 압도한다.

초록과 청색의 연잎이 롤링스톤스 아이콘의 혀를 내민 얼굴을 빨고 있다. 왜 흥대는 이처럼 하지 못할까? 나는 내가? hip’ 이라는 단어를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그것을 의미하면서 썼는지도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로 이순간까지는.



REBELS

with a Cause?

이유있는 반란?

By Jean Briesbois with Ko Un Eum

Alarmed by North Korean sabre rattling (1), and with little faith in emergency evacuation plans, a band of expatriates has formed a guerrilla unit to resist an invasion from the North while demonstrating that their love for Korea goes beyond the weekly white envelope stuffed with Won. 북한군의 위협적인 도발행동과 유사시 탈출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창설된 외국인 부대. 이 부대는 북한군의 침략에 맞선다는 목적과 더불어 돈봉투를 손에 쥐어주는 나라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Out in the mountains of northeastern Seoul, just minutes away from Sanggye Subway Station, the commander of Seoul's first foreigner only guerilla army is applying the finishing touches to his forest command bunker

서울 북동쪽, 상계역에서 불과 수 분 거리에 있는 한 산에서, 서울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외국인 게릴라 부대의 사령관이 숲 속 사령관 병커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다.

It may have been just over 50 years since the armistice that brought a halt to the Korean War was signed, but for Canadian 'Fat Don,' the self-styled generalissimo of a band of expatriate (2) weekend warriors, the subject of war on the peninsula is not to be taken lightly. 정전협정이 체결된지도 어느덧 50여 년 가량이 흘렀지만, 이 외국인 (外人) 주말부대의 총사령관인 캐나다인 "Fat Don"에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There, that'll do it," said Fat Don as he rested his ample bulk against a tree and took a moment to admire the results of his handiwork. "이만하면 되겠군." 그는 큼직한 군장을 풀어 나무에 기대어 놓고 자신이 손수 만든 병커를 보며 흡족해하며 말했다.

"You know there's nothing better than a good sandbag bunker. This little number won't resist a direct hit from an artillery shell but it's definitely better than nothing once the shooting gets going." "모래 병커만한 것이 없죠. 대포 직격탄을

막아내기에는 너무 개수가 적지만, 그래도 사격전에는 이만한게 없어요"

I laughed out loud at what I assumed to be a joke until the big man set me with a steely stare and demanded to know what was funny. 농담 같은 그의 말에 크게 웃던 나는 무엇 때문에 웃느냐는 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웃음이 쑥 들어가 버렸다. As I offered up some sheepish excuse, it suddenly dawned on me that this guy was dead-ly serious about what he was doing. 농담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채고는 궁색한 핑계로 상황을 수습하면서, 이 사나이가 이 일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Immediately I felt confident that my decision to decline Fat Don's invitation to be 'embedded' (3) with his "army" for their weekend of training was a good one.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가 창설한 "부대"의 주말 훈련에 동행 취재 제의를 거절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I barely managed to suppress another fit of laughter as I made a mental comparison between Fat Don and Francis Ford Coppola's renegade Colonel Kurtz in the Vietnam War film Apocalypse Now.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 Apocalypse Now의 Colonel Kurtz와 이 외국인부대의 사령관인 Fat Don이 머리 속에서 대비되면서 또다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As any great, or not so great guerilla leader will testify, the hardest part of forming an army is finding recruits who are willing and able to make the necessary sacrifices for the cause. 부대원을 모집하는 것은 모든 게릴라 지휘관이 공통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일이다.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 자기 목숨도 가까이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For Fat Don, this challenge was no different, and he overcame the

obstacle through perseverance that even his closest friends feared was bordering on becoming an unhealthy obsession. Fat Don에게도 역시 부대원 선발이라 가장 큰 과제였다. 하지만 그는 무서울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결국 이 난관을 극복했는데, 이를 보면서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Fat Don이 비정상적인 집착에 사로잡혀있다고 걱정할 정도였다.

According to Fat Don, he used to spend his Friday and Saturday nights doing the rounds (4) of the bars of Nowon-Gu. Fat Don의 말에 따르면 대원들을 선발하기 위해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노원구에 있는 술집과 나이트 클럽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I would hit up any guy that I felt would make a decent recruit," he said. "부대원으로 골어들일 만한 사람들이 보이면 누구든 부딪쳤지요." "Occasionally, this would lead to violence. A guy would take my proposition the wrong way and before you knew it, I'd be punching it out with him or his friends."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기도 했어요. 제가 한 제안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먹을 날리곤 했으니까요"

A 28-year old American who introduced himself as 'Matt', first decided to join the guerilla army after watching Fat Don "work over" a bunch of hakwon "punks" whom he'd suspected of mocking his recruitment efforts. Fat Don이 자신이 부대원을 모집하는 것을 아유하던 펑크족들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을 보고, 28세 미국인 청년 Matt가 첫 부대원이 되었다. Thoroughly impressed by the way Fat Don handled himself, he approached the big man, and over the course of the evening, and a bottle of Malibu, became convinced that what Fat Don had to say made a lot of sense. Fat Don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그가 먼

Do you have a head for heads?



위에 있는 6분의 두상은 두구일까요?
해답은 17 페이지에 있습니다.

Who are the 6 heads above? Try your skill.
Answers on page 17.

저 다가가고, 몇 차례 더 만나 술자리를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Fat Don의 구상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Normally, I wouldn't give a space cadet idea like this the time of day," said Matt, in between taking drags on what smelled like a very strong "herbal" cigarette. "평소에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향이 강한 잎담배를 씹으며 그가 말했다. A former SUBWAY restaurant employee with a gentle manner, Matt politely refuses to accept the suggestion that what he and his fellow "soldiers" are doing could be considered by some to be extremely bizarre behaviour. 전직 SUBWAY 종업원이었던 Matt는 자신과 동료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말도안되는 괴짜 같은 행동으로만 비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I'm not ashamed of being prepared, I was a Boy Scout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dude, you won't find a more stable guy than me in Korea. But the way things are going with the North, what choice do we like...um have?" "우리는 늘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때랑 도시에서 살면서 보이 스카우트 활동을 했어요. 한국에서 처처럼 한국에서 정(停)적으로 살아온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Months of perseverance eventually paid off for Fat Don when one early Sunday morning in March, he conducted his first mountain top roll call. Fat Don의 수개월 간의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3월의 어느 일요일, 첫 점초 소리가 산 정상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다.

In the cold, hard light of dawn, 30 recruits solemnly pledged to lay down their lives in the defense of the Republic against aggression from the North and and with that also to preserve their own way of life.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30명의 게릴라 부대원들은 북한의 공격에 맞서서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했다.

At this morning's roll call, only 20 of Fat Don's guerilla band have mustered together. 오늘 아침 점초에는 부대원 중 20명이 소집되었다. The band usually consists of 30 die-hard members, who are all male, with ages ranging between 20 and 40. 부대는 보통 20세에서 40세까지 이르는 30명의 강건한 남자 멤버들로 구성된다. They have assembled as part of their once a month commitment to the cause, to learn advanced guerilla warfare techniques, practice target shooting with replica nylon pellet air rifles and conduct a 24-hour war game. 그들은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다시금 부대의 존재 목표를 상기하고, 새로운 게릴라 전술을 익힌다. 이와 더불어 모조 소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고는 24시간의 모의 전투 훈련을 받는다.

The majority of this group have called Korea home for at least 5 years or more and feel a strong affinity with the people and the land.

부대원들 대부분을 최소한 5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해온 사람들로써 한국과 한국민에 평정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Employed by day as private English teachers, they ply their trade in the surrounding neighborhoods and have reached a point in their lives where returning to their homes in the Western World is no longer an option. 낮에는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사람들과 사귀는 동안 어느덧 그들에게 한국은 고향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언제고 고향으로 돌아



아갈 여지가 있다는 생각은 없어 진지 오래이다. For 'Joshua', a 32-year old peroxide blonde from New Zealand, Korea is worth dying for. 뉴질랜드에서 온 서른 두 살의 금발의 백인 'Joshua'에게도 한국은 기꺼이 목숨을 바칠 나라가 되었다.

"I first came here in 1995 and to be honest, it was all about the money but now, I dunno, it's like this place is part of me," Joshua said. "My girlfriend is from Thailand but we have a real life here, everything is sweet and I don't want anything to change. I would rather die than give this up" "처음에 한국에 왔을때는 단지 돈을 벌어보려는 생각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땅이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Joshua는 "제 여자친구도 태국인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찾게 된 땅은 한국이에요. 한국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위협 받고 빼앗길 위험에 처한다면 기꺼이 목숨을 바쳐야지요"

After listening to what I assume to be the sergeant at arms announce the day's programme of activities, the "soldiers" fell out and moved off to begin a 2-hour march through the surrounding valleys. 오후 훈련이 시작된다는 하사관의 목소리가 들리자 "군인"들은 어느덧 흩어져나가 2시간짜리 게국 동반 훈련을 시작했다. I asked Fat Don when he expected to return to camp, but the great man only mumbled a reply which I didn't quite catch. 나는 Fat Don에게 언제 캠프로 돌아가는가라고 물었지만, 이 거구의 사나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His attention was focused on berating one of his men, who was obviously still inebriated from the night before, for not wearing the regulation issued camouflage trousers. 그는 위장복도 입지 않고 아직도 전날 먹은 술냄새를 풍기고 있는 한 병사를 호되게 야단치는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I had to agree with Fat Don, anything would have been a big improvement on the Puma Day-Glo orange

track-pants that he elected to wear instead. 나머지 Fat Don의 편에 설 수 밖에 없었는데, 그가 출런 북 대신 입고 온 Puma Day-Glo의 오렌지색 바지는 정말이지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As Fat Don's band of guerillas marched off into the calm of the early morning, I couldn't help but smile as I recalled a comment that the spokesperson for the Canadian Embassy made when questioned about her government's stance on Canadian nationals forming

guerilla armies in Korea. 게릴라 부대가 고요한 아침 정적을 깨며 행군하는 것을 보면서, 캐나다 대사관 대변인이 했던 말이 떠올라 웃음을 지었다. 캐나다인이 한국에 게릴라부대를 창설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같이 대답했었다.

"If a Canadian citizen residing in Korea wants to become involved with guerillas, then they should visit the zoo." (5) "편약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이 게릴라에 관심 있다면.. 아마도 동물원에 가야겠지요"

I am not sure that Fat Don appreciates this type of humor though. Fat Don 역시 이 농담을 듣고도 재미있어할지는 잘 모르겠다. At one point when I was speaking with him he was so uptight, (6) that he seemed to suffer from chest pains and all he wanted was to talk about his army and the great potential it had to unite the Korean and foreign communities. 내가 만난 Fat Don은 긴장과 불안으로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의 대화의 주제는 시종일관 그가 창설한 부대, 그리고 외국인 사회와 한국을 융합시키는데 있어서 게릴라 부대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Who can say if that is going to happen or if this band of Northern Seoul brigaders will ever get forced into real action. 누가 알겠는가? 북서울을 지키는 Fat Don의 게릴라 부대가 정말 이런 역할을 하게 될 날이 올지, 혹은 정말로 게릴라 부대가 출동해야만 할 날이 오게 될지 말이다.

3 by 3 language guide. 1. sabre rattling= when military personnel start to to make threats of invasion or attack. 2. expatriate= a person born in one country but living in another and showing allegiance to that new country. 3. embedded= when someone from the press travels with a military group to cover the fighting and get a real story. 4. doing the rounds= going to all of the bars and/or dance clubs in a district. 5= This quote is a joke and suggests that the effort of the militia is not earnest or help ful. 6. uptight= to get nervous.



Jean Briscois is writing a book about English teachers living in Korea. Ko Un Eum is studying Clinical Psychology in the USA Contact info dddlifeinkorea@yahoo.com

The Changing Mind of a Boy

WonChon Information and Industry School

English conversation class.

원촌 정보 산업학교 영어 대화 수업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세요.

My name is Ye Byung Hun and I am studying English at the Wonchon Information and Industry School.

제 이름은 이병현이고 원촌 정보 산업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a chance to speak English to you.

이렇게 영어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As you probably know, Wonchon Information and Industry School is a probation school where the students are here all the time.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촌 정보 산업학교는 보호 감찰 학교로 학생들은 온 종일 여기 있습니다.

We don't get to go home at night.

저희는 밤에도 집에 가지 못합니다.

One year ago I stole a car.

1년전, 저는 자동차를 훔쳤습니다.

Well maybe I should tell you my story.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군요.

When I was young I was foolish and angry; I never listened to anyone and I thought I knew how to make my own rules.

어렸을때 저는 어리석었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남들이아기는 듣지 않았고, 제 자신의 규율은 제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ut my problem behavior just kept growing until no one could save me from a painful fate.

그러나, 저의 잘못된 행동은 불행한 운명에서 빠져 나을 수 없을만큼 커져 버렸습니다.

I physically hurt people in my community and I hurt the people around me emotionally.

저는 학우들을 육체적으로 괴롭혔고, 제 주변 사

람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I never even knew whose car it was that I stole or the people I hit when I had my accident.

저는 심지어 제가 훔친 차의 주인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제가 사고로 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But just as important I knew my family and those who loved me and tried to help me in life.

그러나 저는 소중하게도 제 가족을 알게되었고, 저를 사랑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I never listened to them until it was too late.

저는 너무 늦도록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다.

They tried to help me with my past and told me to study and have a kind spirit. But, I was always distracted and had a hard time studying.

그들은 제 지난 일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했고, 맑은 영혼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빗나갔고 배우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t school, the words and numbers always seemed mixed up to me and when I told my friends and teachers... well, they laughed at me.

학교에서, 단어나 숫자들은 저에게 혼란을 줬고, 제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말이라도 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Now I have brought shame and pain to my society.

그때 저는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But now, look at my face.

그러나 지금, 제 얼굴을 보십시오.

I am just an average guy who made a mistake.

저는 그저 실수를 한 평범한 사람을 뿐입니다.

I didn't know how to move well in this society.

저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What I did was wrong and this is how I am here standing before you representing Wonchon Juvenile School.

제가 한 잘못된 행동들로 저는 원촌 소년원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A lot of good has come from my time here. I have had lots of time to think and understand the situation that my actions and life has caused.

여기 있는 동안 저에게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 행동과 삶의 방식으로 생긴 상황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Only after coming here did I realize how I took for granted all the possibilities that were open to me in the past.

여기에 와서야 저는 제 과거에 열려있던 가능성들

을 어떻게 당연시 했던가 깨달았습니다.

Maybe some possibilities are not available to me now.

어쩌면 그 가능성 중 일부분은 현재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I have learned how to learn on my own and to study for myself without anybody looking over my shoulder.

저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혼자 공부하고 살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As you can tell I am very proud of my English skills.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제 영어 실력이 자랑스럽습니다.

As they say in America, practice makes perfect, so I have spent many hours reading books and writing essays in English.

미국 속담에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고 했듯이, 저는 수많은 시간을 영어책과 영어 작문을 하는데 들였습니다.

This is where I have really learned something about myself.

이곳이 진짜 제 인생에 대해 배운 곳입니다.

I didn't get a chance to do regular teenage stuff like go out and see movies and hang out with my friends.

저는 보통 십대들이 하는 영화보기나 친구들과 놀러다니기 등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Instead I came to realize that when I leave here I want to do something with my life.

대신 저는 이곳을 떠나서 제 인생에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Something good I hope.

바라건대 좋은 것을요.

No, something good I know.

아뇨, 뭔가 좋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I hope to become a qualified Korean-English translator.

저는 공인된 한-영 번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I feel my English language skills and

improved mind can be a valuable asset to someone in government or in information technology.

저는 제 영어실력과 좋아진 마음이 정부나 정보산업에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opeye's, psycho kinesis, etc.

Hye-jin, Kim

"Why don't you look at this?"

When Hyun-sun starts to talk to me, I am absorbed in stealing a glance at the boys of the next table. It was nine pm, the end of the long summer. Although Popeye's was almost empty there was quite a catch of boys sitting next to my table of joy. I usually use the window to watch them instead of watching them directly, but tonight everything will turn differently.

"Hey, what are you doing?"

Hyun-sun bent her fingers up and down before my eye

"Is there something out there?"

"No, something inside not outside"

Hyun-sun seemed not to understand what I said and she looked like she didn't care whether she understood it or not. But she did smile. Yet I don't know whether it's self scorning or merely smiling and again she became serious. Her serious mood never turned against me because if I absorbed her emotion, I would feel like somehow falling into the bottomless pit, or would feel a pain like belly-flopping into a swimming pool as shallow as knee height

"You know..."

"Hum hum?"

"...Look at this"

She pointed at the tray with a half left coke cup, straws, a dampened ice-cream cone, and a pile of potato chips- it's too sick to eat.

"Hum."

My firm determination against her was broken off at her stroke. One of the hard and dried chips floated in the air slowly. I wanted to pick up the floating chip, but I thought better of it. What is this?

A little later, another potato chip fell down to the pile with a pat. She took her glasses off and rubbed her eyes. I spoke in an indifferent way, yet to the bone.

"It's... psycho kinesis."

"Yap."

She nodded her head. Actually she wasn't interested in Sci-Fi or extrasensory perception. She didn't like fantastic and nonsensical stories. She knew, however, the word, psycho kinesis. She might have had to look it up somewhere.

To tell the truth I am having some feelings from that movie... "X-Man2". Of course I suggested this to her but really again, she'd never been interested in any kind of X-Man movies

Actually, it was strange that she wasn't against it when I suggested a very psychic scene from that movie. She gave her attention to hear-

ing about the scene where the Tsunami is stopped. In fact it picked her spirits up. She wanted me to say something to her as if she was more like a puppy than a witch. But then I asked 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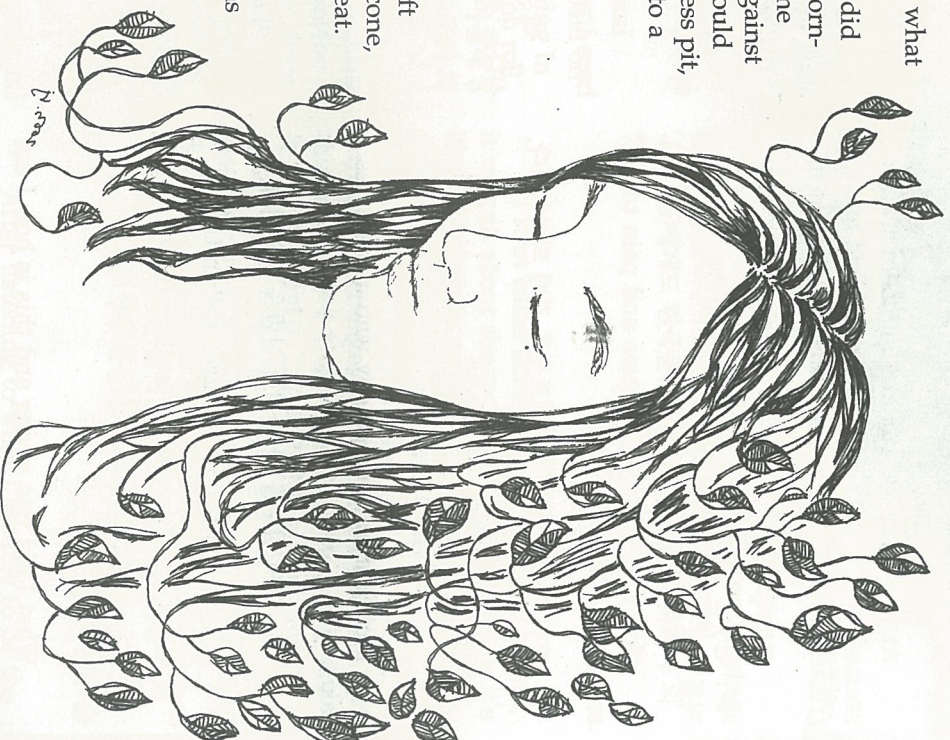
"Can you do the same thing with the kids in a movie house?"

"No, I can't, actually, this is all. 5cm is maximum"

Hyun-sun picked up another potato chip. It can't ever be over five centimeters, same as a finger. For some reason I felt like I had to cheer her up.

"Hyun-sun!"

I seldom call her name. But when I do, it's another way of saying that I'm serious about her and she snaps to attention.



"The size is not so important, now."

I tried to speak in a soft tone giving her strange advice and hope.

"Even though you can do this, it is not helpful to improve your exam score at all. It's not at all like telepathy is it? It may be considered a real talent, but wouldn't you rather go to university?"

She just looks down.

I don't want to be a disbeliever in her presence, but what kind of reality is this anyway? Her psycho kinesis can only lift a piece of potato chip 5 or 7cm. There is no use of this kind of ability to earn money or to go a university.. well, it could be used through her life, but who knows how or why?

"Let me think about what can you do with

your psycho kinesis..." I murmured.

She nodded her head. She seemed not to care much. Indeed she is primarily not the kind of person who is interested in these New Age things. As for me, I have no idea about how to develop those abilities. I think that there might perhaps be certain facilities for special people like Hyun-sun but she has just 30 days before she makes a big decision and it not the right time to do anything about it. For now....

파파이스, 영력,
그리고 고3

김혜진

"이것 좀 봐 블래?"

현선이가 말을 걸었을 때 나는 파파이스 유리창에 비치는 옆 테이블의 남자들이 관찰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길디 긴 여름해도 다 지고 난 아홉 시, 파파이스는 거의 비어 있었는데 아주 즐겁게도 꽤 근사한 남자들이 둘 건너 옆 테이블에 앉았다. 대놓고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유리창을 이용한다.

"아, 뭐해?"

현선이가 손가락을 들어 내 눈앞에서 까딱였다.

"밖에 뭐라도 있니?"

"밖이 아니라 안이야."

현선은 뭐? 하는 표정을 잠시 지었다가, 못 알 아들이면 어때 라고 생각을 바꾸는 듯 하더니, 자조인지 망소인지 아니면 그냥 미소인 건지 살짝 웃었다가, 다시금 심각해졌다. 나는 현선이가 심각해져도 절대 파라서 심각해지지 않는다. 현선의의 심각함은 중점을 수 없는 것이니까. 괜시리 맞추려고 했다가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멍으로 추락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니면 깊은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무릎 높이 플장에 머리를 박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있잖아..."

"으흠?"

"... 이것 좀 봐."

현선은 녹색헤진 아이스크림 콘과 반쯤 남은 콜라 컵과 빨대와 수북하게 쌓인 - 너무 딱딱해서 도저히 먹을 맛이 나지 않았다 - 포테이토 칩이 놓인 판을 가리켰다.

"으흠."

현선이 네가 뭐라고 해도 난 흔들리지 않아, 라는 나의 단호한 결심은 단번에 깨졌다. 먹을 것으로 분류되기에는 너무나 딱딱하여 거부된 포테이토 칩 무리 중 하나가, 그래도 난 부드럽다고요! 나는 달라요! 하고 주장하듯 공중으로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그래? 그림 한 번 맛을 봐주지, 하고 집어 들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 상황을 보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잠시 후에 톱, 동료들을 배신하고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용을 쓰다가 연거푸 거부당한 포테이토 칩은 도로 무더기 위로 떨어져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현선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염동력이네."

"응."

현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선이는 에스에프나 초능력 같은, 한 마디로 황당무계한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 애가 염동력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더니, 아마 자기도 어디선가 찾아봤겠지.

"음, 사실은 애가 영화보고 나서 어떻게 있어서..."

우리는 '엑스맨 2'를 봤다. 물론 내가 보자고 해서 봤다. 다시 말하거니와 현선이는 엑스맨 류의 영화에는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그 영화를 보자고 했을 때 싫다고 하지 않은 게 이상했었다. 한 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다. 다른 사람들이 쓰는 염동력이라는 건 어떤지. 거기 나오는 염동력은 장난이 아니다. 해일을 막을 정도다. 현선이도 자극을 받은 모양이다. 그러니 나에게 말을 할 마음이 생겼겠지. 현선이는 뭐라고 말 좀 해줘, 하는 강어귀 같은 표정으로 날 보고 있었다. 난 참 잘했어, 하면서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그전에 먼저, 정리를 좀 해줘야 했다.

"너 거기 나오는 애들처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애기가 달라진다.

"아냐,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 정도가 끝이야. 오 센터?"

현선이는 다시 포테이토 칩 하나를 올렸다. 정말 오 센터가 조금 넘을 까, 손가락 한 개 높이였다. 그렇다면 좀 곤란한데. 그래도 나는 현선이의 친구니까, 격려를 해 주었다.

"오 센터는 넘겠다."

"그래?"

"그럼 무거운 건 가능해?"
현선이는 고개를 저었다.

"별로. 해 봤는데, 책 몇 권까지는 되는데, 더는 안 되더라고. 이것도 무게 제한이 있나봐."

그렇다면 더더욱 곤란하다.

"현선아."

나는 좀처럼 현선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내가 그 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름대로 심각해지겠다는 선포인 셈이다. 현선이도 긴장한다.

"그런 건, 지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해 부드럽게 그 애에게 도움이 될 말을 하려고 했다.

"네가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당장 일점이 더 오르는 건 아니잖아. 뭐, 텔레파시나 그런 것도 아니고."

"....."

"이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이니까 개발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대학을 가야할 거 아니냐?"

나도 염동력을 가진 애 앞에서 이런 충고를 늘어놓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현실인 것을 어찌할까. 염동력이라고 해봤자 포테이토 칩 한 개를 오 센터, 아니 칠 센터 올리는 능력이라면 어디에 써먹겠는가. 뭐, 살다 보면 쓸 일도 있겠지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가질 수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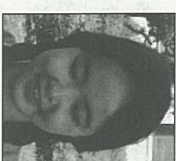
"생각 좀 해보자.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현선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별로 상관없다는 표정이다. 하기가 현선이는 원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 능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로서도 아는 바가 없다. 어쩌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을 모아다가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할까 하다가 그만 두었다. 이제

Answers to "Do You Know Your Heads?"

1. Einstein. 1879-1955. American theoretical physicist, known for the formulation of the relativity theory
2. Pablo Ruiz Picasso 1881- 1973. Spanish painter, sculptor, who worked in France. He is generally considered in his incredible originality and prolificity to have been the foremost figure in 20th-century art.
3. Kurt Cobain 1967-1994. Lead singer and guitarist of the 'Grunge' band Nirvana. 'Grunge' music was an alternative hard rockin sound.
4. King Sea Jong. 1418 - 1450. Developed Hangul, the Korean writing system. Known to be a mystic.
5. Nam June Paik 1932-) Installation artist known for putting together unusual arrangements of objects like video tape players on top of a piano.
6. Lee Sang

Hye Jin Kim Lives and writes in Seoul. Contact dddlife@korea.com



A. Claude.

수능이 석 달 남았는데 그런 정보를 찾으라고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뭐, 현선이가 굳이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애쓸 애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곤란하다. 지금은.

Emoticons - Part II

Kim Woo Jung

It seems that people send fewer "real letters" (1) these days. While the decline in snail mail (2) has made the postman's job easier computer servers and cell phone text message centers are working harder as people send more and more electronic letters. Emoticons, simple hieroglyphs that people use to express their feelings electronically - are found in many of these electronic letters. While the addition of these feelings is understood and welcomed by some people other people aren't yet familiar with the language. As a result there are misunderstandings. Here is a real story for you to think about. A student sent a message to their professor concerning their final grade. The professor did not reply. The student asked the professor why. The professor said he had deleted the message because he couldn't understand what the symbols alongside the title meant. He simply did not take the message seriously. To help bridge the gap here's another list of Emoticons and their current meanings. Don't OTL (3).

요즘에는 우표를 붙인 "진짜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일반 메일의 수가 줄어들면서, 이것이 우체부 아저씨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전자메일로 인해 컴퓨터 서버와 핸드폰 문자 메시지의 기능만 더욱 바빠지게 되었다. 이모티콘(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전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순한 상황문자들)은 많은 전자 메일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감정의 첨가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이해하기 쉽고 환영 받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못한 언어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언어의 교류에는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실제 이야기가 있다. 한 대학생이 기말고사 점수 수정요청에 관한 메일을 담당 교수에게 보내게 되었다. 학생의 메일에 대한 교수의 반응이 없자, 그 학생은 교수에게 찾아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쨌어보았다. 그 교수가 말하기를, 이메일 제목에 사용된 상황문자들, 즉 이모티콘들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그 메일을 단순히 하나의 광고 메일이라 생각하고,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삭제버린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기 몇가지 이모티콘들과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의미들을 나열해본다. Don't OTL! (여기서 말하는 OTL은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사람을 표현하면서 '포기, 항복'의 의미를 가지는 이모티콘이다. 즉 포기하지 말아라!는 뜻이다.)

- (1) real letters - hand written letters sent in a stamped envelope
- (2) snail mail - regular postal service
- (3) OTL - emoticon for give up or surrender : kneeling, head bowed to the floor.

*Objects, jobs, and people		
[:-]	portable cassette	휴대용 카세트
[:-)	one eye brow	일눈썹
C=)	chef	오리니
B- I	batman	배트맨
: -)	Madonna	마돈나
(I)	skinny bum	착은 엉덩이
<:==	squid	오징어
L :-)	graduating student	졸업생

Saying Yes: Beauty into Action or Losing Weight in Korea

by Tahl Gitter



Perceptions of beauty vary around the world. In Canada I was chubby'. In Spain I was thick, but well received. In Korea I'm fat. Fat! What a dirty word. And it wasn't until one of my hagwan kids loudly announced this that I realized I was now being held to different beauty standards

나는 여기서 세계 각국에서의 인지도어지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캐나다에서 나는 토실토실 하다가 갑자기 살이 쪼개 되었다. 스페인에서 나는 그저 토실토실(그러나 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했었다. 그러던 내가 한국에서는 비만이다. 비만! 이게 무슨 더러운 단어인가?? 그건 내가 학원에서 한 꼬마 학생이 나에게 단호하게 비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아름다움의 다른 면을 보았고 그것의 다른 기준을 깨달았다.

An amazingly beautiful, voluptuous Korean co-worker of mine confided that she hated her body, especially her hips. Seung Mi wished she had a different body. "I feel... not hate, but just compared to other women, I feel fat. And now everyone wants big breasts, though skinny models are desirable. Everyone wants to be a model. They can't be, but they always dream of this."

정말로 아름답고 나보다 날씬한 나의 동료는 하늘이 내려주신 육감적인 엉덩이를 갖고 있지만 그녀는 그녀의 몸이 싫다고 했다 "나는 내 몸이 싫은 게 아니라 단지 한국의 다른 보통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풍뎡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몸은 마르고 가슴은 큰 그런 모델 같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고 있지. 모든 사람들은 모델을 동경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꿈꾸곤 하지."

Losing weight had always been in the back of my mind, but when I couldn't pull my chunky butt² onto a wakeboard last summer, I vowed to come home thinner. Of course, the first step is the hardest to take, especially for a green³ foreigner adjusting to her new Korean lifestyle.

살을 빼다는 것은 항상 나의 뇌리에 박혀 있었지만 지난 여름 나의 풍뎡한 엉덩이를 약한 판자에 올려 놓을 수가 없었을 때 나는 날씬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가기를 맹세했다. 그 첫 단계는 대개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했다. 특별히 한국생활에 받을 들어 놓은 아주 못내기 외국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Dieting

Rather than try to starve myself, I chose a sensible long-term plan, Body for Life. However, many of their listed foods aren't in Korean stores. In addition, I was hard pressed⁴ to encounter ways of cooking that didn't involve a frying pan. However, I was determined, and after much science and art, I perfected a method to grill lean meat in a primitive wire grill balanced atop the stove.

단기적으로 단식을 택하느니 Body for Life가 제시하는 긴 시간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이 제시하는 많은 식품들을 한국에 있는 상점에서 찾기란 불가능했다. 게다가 나는 기를 사용하지 않는 볶음 요리를 건구해 대느라 벅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과학적 실험과 예술의 실험을 통해 나는 나만의 살코기 구이 방법을 완성해 냈다.

Conversely Korea offers dietary benefits. The Hait Mart downtown, for example, offers nothing but organic greens. Brown rice is in every food store. I love that a co-worker, whose family farms organic oranges in Jeju-do, keeps me in healthy supply. Ah, how the traveler can be inadvertently blessed!

한국은 어떠한 다이어트 요법에 맞는 식품만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집 아래에 있는 하이마트(슈퍼이름)에는 오직 유기농 채소만이 있다. 현미를 살려면 어느 상점에 가도 좋다. 나는 제주도에서 감귤농사를 하는 가족을 둔 건강하게 나의 식이조절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 나의 동료(승미)를 사랑한다. 어떻게 여행자가 초행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나?

Exercising

My past relationship with exercise had been "off and on". Sometimes we were merely courting, at other times full-on dating. At times we were taking a break and I wanted to see other people, namely drinking, partying, and fast food. But now I wanted to get serious. Seung Mi and I joined a

Korean gym together. After three months I started to see results. And I wasn't the only one. In the crowded change rooms, I couldn't help the burning in my ears.⁵ Seung Mi eventually pulled me into a conversation, explaining that the older women had noticed my progress. They smiled and nodded at me, saying, "Beautiful, beautiful," making the figure of an hourglass with their hands. According to Seung Mi, "older people don't like skinny. They know the hour glass figure is more attractive to men but only skinny bodies are on TV." As the only white member, I knew I was bound to attract attention, yet I hadn't realized how much. "Everyone was following your progress," Seung Mi told me months later. "They envied you because they want to lose weight." I was shocked. "Even the old people?" I asked incredulously. "Yes."

나는 나의 운동 이야기를 "몸직임과 경지" 관계, 즉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다이어트)과 가벼운 메이트를 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주 진한 시간을 가졌었다. 내가 잠깐 쉬고 싶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은 냉정기를 갖는 의미로 그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의미는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기며 그리고 가장 참여왔던 즉석요리를 한 번 먹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였다. 하지만 승미와 나는 심각한 현실을 깨닫고 체유관에 등록했다. 대략 3.4 개월 후에 나의 노력은 조금씩 빛을 말하기 시작하여 내 눈으로 그 눈부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건 나만이 느끼는 건 아니었다. 운동 후에 아주 비좁은 탈의실로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 승미는 나를 그들의 대화 속으로 밀어 넣었고 나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예뻐다, 예뻐다"라며 손으로 내 앞에 서 모래시계를 그리며 나에게 설명하려 시도했다. 승미의 말에 따르면 "나이는 사람들이 큰 몸매를 좋아하지 않아. 그들은 모래 시계 형 몸매가 남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것을 알고 있지 그러나 TV에서 오직 마른 몸매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 하나 봐." 나는 내가 단 한 명의 백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그게 어느 정도 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너의 프로그램을 시도하게 됐어." 승미는 몇개월 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그들은 너를 아주 부러워했지. 왜냐구? 넌 아주 많은 무게를 감당했기 때문이야." 나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 "나이는 사람들 조차도?" "물론이지!"

Size 7... Finally...

I still feel my thighs are chunky, and I know that there are parts of my body I can never change. Regardless, I do feel beautiful in a land that, despite all my hard work, tries to tell me I am not. I no longer care about the store clerks who still try to fit me in a large; the barrage of comments that range from a patronizing, "Beautiful...large" to a blatant, "Teacher fat!" As for Seung Mi, she has changed after her experience, too. She tells me, "My confidence has grown and my mind has changed." To no one's shock, after regular exercise she feels healthier, stronger. "I like that feeling." She feels she has recognized her uniqueness, and learnt not to compare herself to others. "After all, " she cheerfully finalizes, "you can't change your bones."

나는 여전히 튼튼한(조금은 많은) 근육을 갖고 있고 그것이 내 몸 일 부분임을 안다. 어떻게 간에 나는 이 땅에서 스스로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으며 아무리 힘든 일이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힘들지 않다고 주문을 건다. 한국 옷가게 점원이 연속적으로 "키도 예뻐요"라고 말을 해대며 큰 옷만을 입으라고 권하는 것에서부터 "풍뎡한 선생님"이란 노골적인 수식어까지 이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승미는 운동 후에 많이 변해있었다. 그녀가 말하길, "나의 자신감은 커져갔고 나의 생각은 성숙하게 바뀌었어." 그녀가 정규적인 운동 후의 느낌이 더 건강해졌고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그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 느낌이 좋아."



1. chubby [날이 찌꺼] = a little bit fat
2. chunky butt [몽땅한 엉덩] = fat or big bottom
3. green [야드 푸내기] = newly arrived
4. hard pressed [버둥대고 있었다] = struggling
5. burning in my ears [내 얘기를 하는 느낌] = sensing that someone is talking about you

DDD STYLE PAGE

돌과 여인

우리들은 자연과 얼마나 친숙한가...
자연이 되고픈 여인은 나무의 형상으로
피부를 감싸고 천연색상의 돌로 만든
구슬로 머리카락을 가리고 있다.
이차원적인 의복을.....
삼차원적인 패션으로.....
점점 재미있게 다가오고 있다.

ORGANIC WOMAN.....

How close we are to nature ...
The woman who wants to be one with nature
Wearing wooden skin and beaded hair
With beautiful natural colors.
Merging into a new dimension
Which resonates with nature's style.



김미정 (miki kim)은 뉴욕에서 광고,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패션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Fashion Director/Sty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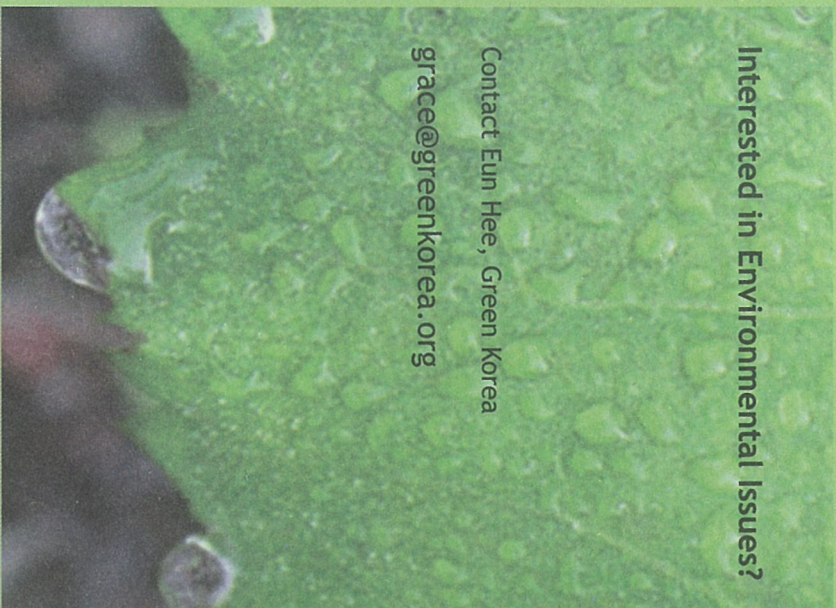
miki kim (kim, mi jung)

DDD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DDD 무료 게시판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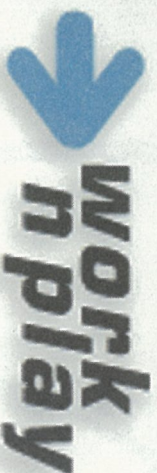
Contact Eun Hee, Green Korea
grace@greenkorea.org



Human Rights Is Hope



JOIN US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S. Korean Section
Tel. 02-730-4755, 4756
Fax. 02-738-4754
Email. amnesty@amnesty.or.kr
Homepage. www.amnesty.or.kr



www.worknplay.co.kr

Korea's Job Resource
and Entertainment Guide



The Seoul Times

Serving Everyone Interested in Korea

Staff Wanted
영어/인턴 기자/웹작원 모집

The Seoul Times is seeking newspaper and its on-line reporters, writers, photographers and editors who want to work as reporters, writers, photographers and editors in English or Korean.

Those who are interested send their resumes to:

Advertising@seoultimes.com

The Seoul Times MAGAZINE

Coming in 2005.....
The Seoul Times Magazine
Write All the Political, Cultural, and Social News happening in Korea.

www.theseoultimes.com

OPEN MIC ROCKSSIN

Anyang's premiere music event

Welcoming all Koreans and foreigners to the
Anyang area.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Rockssin at 031-445-1392
or visit <http://www.greocities.com/openmicrockssin>



A warm neighborhood,
Beautiful Store

Beautiful Store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works
for a more sustainable and sharing society.
We sell secondhand goods donated from citizens,
and shares the profits with our neighbors
living in difficulties in our society.

Beautiful Store is always waiting for your contact.
Tel. 02-3676-1004
Email give@beautifulstore.org
Website www.beautifulstor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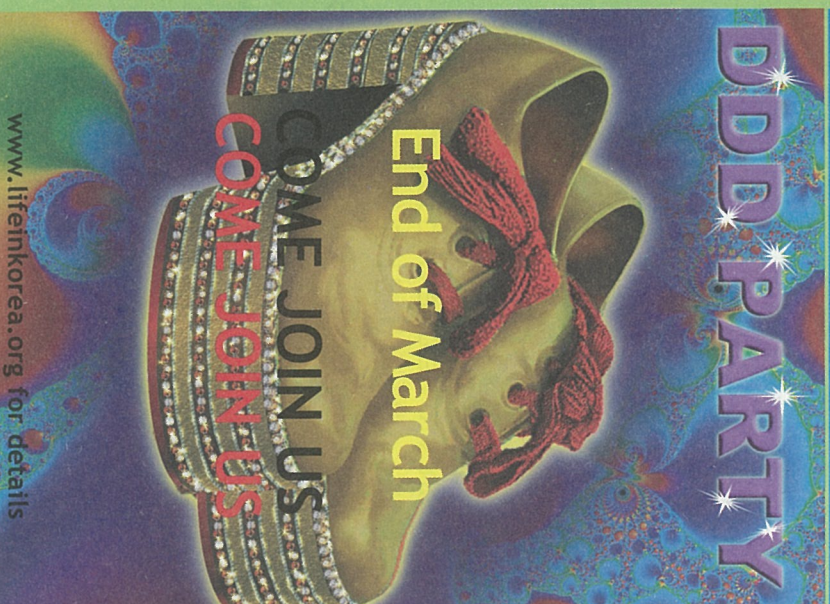
If you love Arts and Books, visit our special stores.
Art Shop, Beautiful Store Hong 0171호 02-838-4226
Used book Store, Bomulsa 031-955-0017



DDD PARTY

End of March

COME JOIN US
COME JOIN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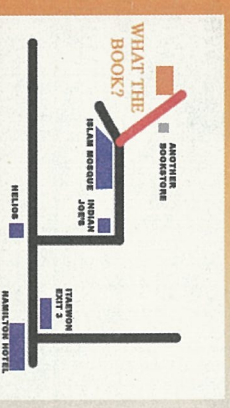


www.lifeinkorea.org for details

whatthebook.com

Largest retail used
bookstore in Korea

Largest selection of
English books online
in South Korea



www.whatthebook.com
02-797-2342

You can pick up a copy of DDD at the store

Contact ddd@lifeinkorea.org or ddd@yaho.com